



2014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함께하는 공부 커져가는 보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 인 사 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튜터링 프로그램은 그중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배와 후배를 튜터링 관계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2004년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4학년도 1학과 2학기에 운영된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운영 실제, 2014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튜터(tutor)와 튜티(tutee)들의 소감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아낌없이 지원해 준 학교 당국,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학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정 상 철**

C O N T E N T S

... 목 차

인사말	03
-----------	----

I. 튜터링 프로그램 소개

1. 튜터링 프로그램의 목적	08
2. 튜터링 프로그램의 종류	09
3. 튜터링 프로그램 FAQ	11

II.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방안	14
2.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일정	16
3. 주간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유의사항	17
4. 우수 튜터링 팀 선정 심사	18
5. 튜터링 수료식 및 우수팀 시상	19

III.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1.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22
2. 튜터링 모니터링 카페 개설	24
3. 주간보고서 예시	25
4. 결과보고서 예시	28

IV. 튜터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 2014년 1학기 만족도 조사	36
2. 2014년 2학기 만족도 조사	37

V. 튜터링 프로그램 이수 소감문

1. 튜터	40
2. 튜티	85



튜터링 프로그램 소개

1. 튜터링 프로그램의 목적

2. 튜터링 프로그램의 종류

3. 튜터링 프로그램 FAQ

|||||

1. 튜터링 프로그램의 목적

튜터링 프로그램은 과목을 먼저 수강한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인 튜터(tutor)의 지도하에 튜티(tutee)들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일종의 스터디그룹)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목 내용에 대한 심화학습
- 협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 선배, 후배, 동료와의 학문적 유대감 강화
-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 협력학습을 통한 리더십 능력 배양
-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부하는 대학 분위기 조성

2. 튜터링 프로그램의 종류

1) 일반 튜터링

튜터링 신청 교과목을 우수한 성적(A⁺ 이상)인 튜터(tutor)가 해당 교과목을 공부하고자 하는 튜티(tutee)를 1대 다수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튜터는 해당 교과목 내용에 대해 재학습 및 심화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튜티는 튜터의 지도를 통해 학업 이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유발합니다.

2) 외국인학생 튜터링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과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학생들이 튜터가 되어 교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글로벌한 학습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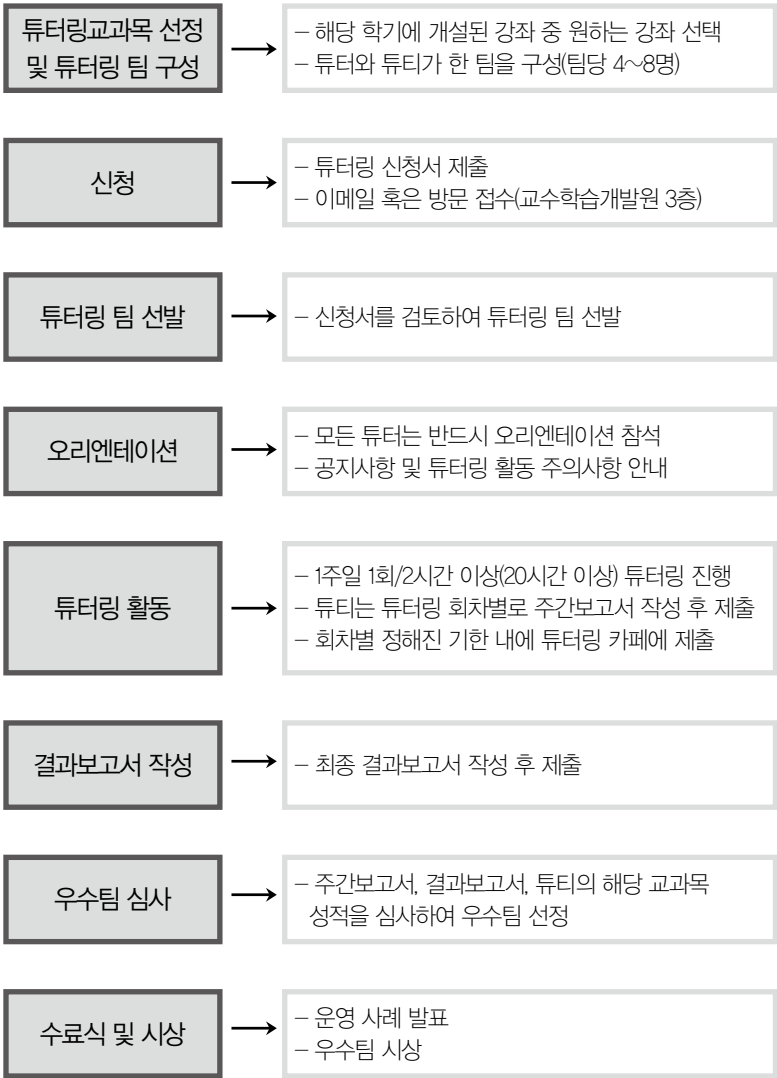
3) 새터민학생 튜터링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업을 향상시키며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외대생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장애학생 튜터링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신체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 학생들 간에 학문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 튜터링 프로그램 진행 흐름도



3. 튜터링 프로그램의 FAQ

1) 강의실

튜터링을 진행하는 별도의 공간은 튜터와 튜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의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9교시 이후에 강의실을 사용하거나(학생감동팀 신청), 교내의 스터디룸을 예약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스터디룸 안내

- 서울 : 멀티미디어 교육원 1층 4실 / 용인 : 어문학관 4층 6실
 - 대실절차 : 홈페이지 방문(d.hufs.ac.kr)→ 좌측 하단 스터디룸 클릭→ 대실현황 조회, 로그인→ 대실 신청, 대실 확인
- 사용준칙 등의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서비스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간보고서와 사진촬영

주간보고서는 매주 작성을 해야 하며, 매 회차의 주간보고서에는 스터디 활동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튜터링 참석자가 찍힌 사진). 스터디 활동사진을 첨부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핸드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꼭 촬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튜터링 장학금 지급과 주간보고서 심사 시에 활동 사진도 점검하오니 반드시 사진 촬영 후 카페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3) 중도탈락 및 튜티 추가

튜터링을 진행하다 보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탈락의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튜티 중 4명 이상이 튜터링 진행 교과목을 꼭 수강해야만 튜터링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탈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원을 충원하거나,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탈락이 있거나 새로운 튜터를 추가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바로 교수학습개발센터(Tel: 02-2173-212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과 튜터 추가를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장학금 지급 시기 및 우수팀 선발

튜터링 장학금은 튜터링 활동이 끝난 후 우수팀 선발이 이루어지는 튜터링 수료식 이후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튜터링 수료식은 계절학기가 끝난 후 진행됩니다. 튜터들의 성적이 확정되어 학교 시스템에 등록이 된 후 우수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료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발된 우수 튜터링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튜터와 튜티 등 팀원 모두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Ⅱ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방법

////////////////////////////////////

1.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방안
2.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일정
3. 주간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유의사항
4. 우수 튜터링 팀 선정 심사
5. 튜터링 수료식 및 우수팀 시상

////////////////////////////////////

1.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방안

1) 튜터링 참가 자격

i. 일반 튜터링

튜터링 프로그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튜터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과목 성적이 A학점 이상(A^0 , A^+)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 관련 교과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재외국민, 해당 언어로 외국어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튜터 신청자격 : 해당 교과목의 A학점 이상인 학부생, 언어과목의 경우 해당 언어 능숙자(재외국민, 외국어우수자 전형 입학자)
- 튜티 신청 자격 : 신청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 튜터 대 튜티의 비율 : 1대4~8(튜터가 원할 경우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음)

ii. 특별 튜터링(외국인, 새터민, 장애학생 튜터링)

특별 튜터링 프로그램은 튜티가 먼저 지원하면, 튜터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튜티는 위 세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하며, 튜터는 지도교수의 추천 혹은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튜티 신청 자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새터민, 장애학생
(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정한 후 팀을 모아 신청)
- 튜터 신청 자격 : 학부 2학년 이상 성적상위자 중 추천을 받은 자, 관련 전공 대학원생
- 튜터 대 튜티의 비율 : 1대2~4(장애학생의 경우 1대1도 가능)

2) 튜터링 프로그램의 교과목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어야 하며, 팀원 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 수업 내용을 심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선정

3) 시간 및 장소

- 시간 : 한 학기에 10회/20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진행 권장)
- 장소 : 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4) 튜터와 튜티의 역할

i. 튜터(tutor)의 역할

- 한 학기 동안 10회 20시간 이상 튜터링 지도
- 결과보고서 제출(센터 홈페이지와 튜터링카페에 있는 양식 사용)

ii. 튜티(tutee)의 역할

- 회차별 튜터링 주간보고서 작성(1회차당 1명만 작성)

5) 지원사항

- 튜터 특전 : 튜터 장학금 60만원
- 우수팀 선발 후 시상금 지급

2.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일정

일 정	내 용
3월 / 9월 1~3주	- 튜터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공고 - 튜터링 참가신청서 접수
3월 / 9월 4주	- 참가 신청서 심사 - 튜터링 팀 선발 - 오리엔테이션 진행
4월 / 10월 1주 ~ 6월 / 12월 2주	- 튜터링 진행(10주/20시간 이상) - 주간보고서 제출
6월 / 12월 3주	- 결과보고서 제출
6월 / 12월 4주 ~ 7월 / 1월 1주	-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심사 - 튜터 성적 조회
7월 / 1월 2주	- 튜터장학금 지급 - 우수팀 선발 - 수료식 진행

3.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유의사항

1) 주간보고서 제출 - 튜터

- 튜터는 회차별 튜터링을 마친 후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튜터링 카페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차별 주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주의 다음 주 일요일로 합니다.
- 매 회차별로 1명의 튜터만 주간보고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3회 이상 주간보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튜터링 팀에게는 우수 팀 심사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 튜터링 신청서에 기재된 학습내용을 위주로 활동하며, 각 주별 학습내용, 팀별 토의내용 및 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하며, 작성한 튜터의 소감도 기재합니다.
- 주간보고서에는 팀원들이 모두 나오도록 찍은 스터디 활동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 주간보고서는 우수팀 선발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결과보고서 제출 - 튜터

- 결과보고서는 튜터링 활동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튜터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 결과보고서에는 학습활동 계획서와 주간보고서상의 학습내용을 충실하게 이수하였는지 등의 자료와 함께 튜터링을 마치는 소감과 겪었던 에피소드,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등을 기록합니다.
-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또한 우수팀 선발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니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활동 유의사항

- 모임 장소 및 시간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록한 사항을 준수하며, 변동 시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알립니다.

- 불성실하게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튜터링 팀을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4. 우수 튜터링 팀 선정 심사

1) 심사 기준

- 주간 보고서 미제출 횟수가 3회 이상인 팀과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동점 팀이 발생할 경우 팀원 수 → 튜터의 해당과목 취득 성적 점수 → 주간보고서 → 결과보고서의 상위 점수 팀을 선정

2) 평가 항목

구 분	내 용	비율	비 고
보고서	주간보고서	40%	- 튜터링 진행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술 - 튜터링 소감 및 의견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전체적인 내용의 충실성
	결과보고서	10%	- 각 회차의 학습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술 - 튜터링 이수에 대한 구체적 소감 및 의견 작성
성적	튜터의 해당과목 취득 성적	50%	- 튜터의 동의를 얻은 후 학교 전산망에서 조회
합계		100%	

5. 튜터링 수료식 및 우수팀 시상

1) 튜터링 수료식

튜터링 수료식은 한 학기 튜터링 활동을 마친 후, 활동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학습활동 결과와 진행 사례, 참여 소감, 개선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2) 우수팀 시상

i. 2014학년도 1학기 시상 내역

시상 부문	팀 수	상금액	교과목명	튜터명
최우수상	1팀	200,000원	재무관리	김학선
우수상	2팀	팀별 150,000원	기초 몽골어 언어실습(1)	강주원
			프랑스어 작문(1)	이승준
장려상	5팀	팀별 100,000원	중급 일본어 회화 (1)	국화
			중급 중국어강독(1)	김동현
			초급 스페인어 문법1	Rosas Cristhian
			초급 터어키어 문법	김수민
			초급독일어회화(1)	조현정

ii. 2014학년도 2학기 시상 내역

시상 부문	팀 수	상금액	교과목명	튜터명
최우수상	1팀	400,000원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습	송정수
우수상	2팀	팀별 300,000원	생존분석 및 실습	채길한
			중급힌디어문법(2)	이재준
장려상	3팀	팀별 200,000원	재무관리	이윤승
			초급아랍어2(2)	서현빈
			재무회계(1)	서수행
격려상	4팀	팀별 100,000원	알고리즘 설계와 해석	박인우
			재무관리	조서준
			이란학입문(2)	허명현
			면역학	김학래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1.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2. 튜터링 모니터링 카페 개설
3. 주간보고서 예시
4. 결과보고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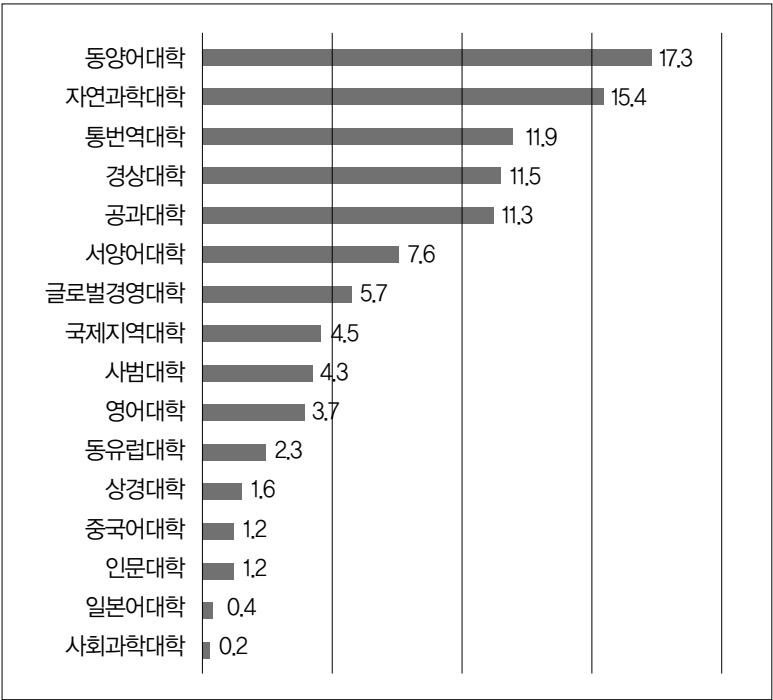
|||||

1.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전체 참가자 수

학기 \ 지원 구분	튜터	튜티	합계
2014년 1학기	39	220	259
2014년 2학기	41	213	254
합계	80	433	513

2) 단과대학별 참가자 현황(백분율)



단과대학	참가자 수	백분율 (%)
동양어대학	89	17.3
자연과학대학	79	15.4
통번역대학	61	11.9
경상대학	59	11.5
공과대학	58	11.3
서양어대학	39	7.6
글로벌경영대학	29	5.7
국제지역대학	23	4.5
사범대학	22	4.3
영어대학	19	3.7
동유럽대학	12	2.3
상경대학	8	1.6
중국어대학	6	1.2
인문대학	6	1.2
일본어대학	2	0.4
사회과학대학	1	0.2

3) 활동 사진

i. 2014학년도 1학기 수료식: 2014년 7월 15일

ii. 2014학년도 2학기 수료식 : 2015년 1월 7일



2. 튜터링 모니터링 카페 개설

2010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포털사이트에 튜터링 카페를 개설하여 튜터링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모니터링하였습니다.



3. 주간보고서 예시

NAVER 카페

중급중국어강좌(김동현)_7주차 | 김동현님_5

공유하기 | 닫기

허유정(yun****)

<http://cafe.naver.com/hultutor1401/309>

주간보고서(튜터작성)

분류	내용
튜터링 과목	중급중국어강좌
튜터이름	김동현
작성튜터이름	허유정
참가튜터이름	박민영, 박수빈, 주소리, 허유정
튜터링 일시	5월 15일 19:00~21:00
튜터링 장소	본관311-1

학습내용

이번에는 가능보어와 무주어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가능보어는 동작의 실현이나 도달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어를 말한다. 가능보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동사+得+보어(결과, 방향보어)'의 긍정형 형태와 '~할 수 없다'라는 뜻의
 '동사+不+보어(결과, 방향보어)'의 부정형 형태가 있다. 모든 보어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듯이 가능보어에서도 목적
 어의 위치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형사 앞이나 보어 뒤에 둘 수 있지만
 가능보어가 쓰인 문장에서 동사가 이합동사일 경우, 이합동사의 목적어는 복합방향보어 사이에 놓인다.

무주어문은 말 그대로 주어가 없는 문장을 가리킵니다. 무주어문은 주어를 확실한 주어를 내세울 수 없거나
 주어가 일반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쓰여집니다.

활동사진 : ※ 가로 400px로 조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업로드시 크기를 400px로 변경 하신 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 업로드시 사진이 '활동사진' 칸 안에 들어가게 한 후에 글쓰기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진 올리는 법을 잘 모르는는 튜터 분들은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소감 및 피견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150자 이상)

가능보어는 1학년 때부터 자주 나오던 것이었다. 수업 두 시간 동안 내내 교수님이 해주셔서 시간이 모자르거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모르는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좋게도 잊어버렸다. 튜터링 시간에는
 도무지 친하고 교수님 선생님이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질문하는 데에 부담감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예문을 통해
 가능보어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예문을 통해 보나와 그냥 외우기만 하면 잘 보이지 않던 가능보어도 이제는 보이게 되었다. 무주어
 문은 교과서에도 거의 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드물었지만 종종 예문에 나와서 고민이 되었는데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좋았다.

NAVER 카페

영한순차통역(김동영)_6주차 | 김동영_5

쓰 올림하기 | 닫기

박유진(puj6****)

<http://cafe.naver.com/hufstutor1402/255>

주간보고서(튜터작성)

분류	내용
튜터명 과목	영한순차통역
튜터이름	김동영
작성튜터이름	박유진
참가튜터이름	박유진, 장소람, 김지은, 이동현
튜터링 일시	11월 6일 13시 ~15시
튜터링 장소	인문관 앞 테이블

학습내용 | * 이 날 배운 내용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이상)

6주차 영한 순차 통역 튜터링은 중간 고사 이전에 진행 하였던 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지난 주의 경우는 중간 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영어 영상의 비중보다는 한국어로 통역을 옮긴 것에 대한 피드백이 중점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번 주 진행될 통역 영상이었던 UN Third Committee releases North Korean humanrights draft proposal online 을 가지고서 통역 연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주제는 국제 기구와 북한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역시 멘토가 미리 준비해 온 어휘 및 표현을 가지고 통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학습을 하였다. 특히 인권에 관한 표현들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초항이나 항목 등 법률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들을 간략하게 곁들여서 학습하였다. 국제 기구가 나오는 영상의 경우는 기구의 명칭을 정확히 통역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제 기구들을 미리 정리하여 한-영, 영-한 모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어휘를 익혔다. 더불어 통역 노트 데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숙달을 시키기 위해 최대한 기구의 약자를 적어서 이를 통역에 수월하게 적용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어휘 및 표현 정리를 끝마치고 영상을 통하여 통역 연습을 하였다. 위의 영상은 기존의 뉴스처럼 외국에서 진행 된 것이 아닌 아리랑 TV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한결 조금 수월하게 노트 데이킹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새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어로 통역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영상을 전부 다 하는 방식이 아닌 한 문장 당 한 열씩 돌아가면서 통역을 진행하였고, 통역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다음 주에 수업에서 진행 할 토론 통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멘토가 설명을 해주었으며 어떻게 수업에서 대처하여 준비를 해야하는 지 간략히 설명하고 듣는 것으로 6주차 멘토링을 마무리 하였다.

활동사진 | * 가로 400px로 조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의견

이번 주에 했던 튜터링 주제가 인권이라 굉장히 난해하였다. 평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나였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어로 통역을 옮기면서 과연 어떠한 어휘를 선택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물론, 통역에 임하기 앞서서 어휘 정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숙지하였지만 순차라는 과정에 있어서는 평소 미리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다면 통역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평소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선적으로는 이번 주에 학습했던 어휘와 표현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향후 기말 고사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다음 주에 있을 토론 통역은 처음 접하게 될 수업 방식이라 약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번 연포형에서 연도에게 들은 대로 침착하게 토론 통역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음 주 연포형에서도 항상 실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습에 임해야겠다.

4. 결과보고서 예시

NAVER 카페

프랑스어작문(1)(이승준)_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서울)

출력하기 | 닫기

이승준(chaz****)

<http://cafe.naver.com/hufututor1401/483>

결과보고서 (튜터 작성)

항목	내용
튜터링 과목	프랑스어작문(1)
튜터 이름	이승준
소속/학번	프랑스어과/201302454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18-885355, 이승준
튜터링 기간	3월 21일 ~ 6월 5일 (총 10회, 20시간)
튜터명단	우영희, 이상화, 김유중, 박재현, 박대건
튜터링 보고	

2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작문(1)은 1학년 강의에서 습득한 프랑스어 실력을 토대로 알맞은 문장 및 엑스트를 생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어휘력, 표현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자가 중요함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어휘 선택, 다양한 표현 적용,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에 중점을 두어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업시간에 나온 주제를 토대로 여러가지 어휘 및 표현을 알려주었고, 직접 튜터들이 이를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주차]

첫 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할 것인지를 튜터들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먼저, 튜터링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튜터들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시간 및 장소를 조절하는 것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각 자 자신의 실력에 대한 평가 및 부족한 점, 튜터링에서 바라는 점 등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동사와 시제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적합한 시제 사용, 시제가 가지는 의미 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튜터가 원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고, 제가 이에 답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차]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편지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적인 편지와 공적인 편지를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틀과 표현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는 편지는 다양한 시제 및 틀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번 직접 써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튜터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도록 권고하고, 이를 첨삭해주어 틀린 점 혹은 더 나은 표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3주차]

지난 시간에 이어 편지에 대한 내용과 시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였습니다. 편지를 작성한 결과 기본적인 틀 및 시제에서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편지는 기본적인 틀과 표현만 습득하면 큰 어려움을 없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편지쓰기'라는 책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추가적으로 알려주었고, 편지를 몇 개 더 써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시제 연습은 한 튜터가 수업 중에 다른 '첫사랑'을 주제로 직접 작성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

4주차에는 문장의 간결성과 감성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작문에 있어 가장 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문장을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잡한 문장을 줄이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간단한 감성담을 주제로 여러 문장을 비교하여, 어떻게 간결한 문장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어 감성 표현에 사용되는 어휘 및 동사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작문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생동감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각 튜터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는 것으로 튜터링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주차]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가운데 하나는 튜터 모두가 같은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간고사 시험도 각자 달랐고, 준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튜터 모두 중간고사를 무사히 끝냈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튜터링에는 한 튜터가 잘못된 'savoir', 'pouvoir' 및 'prendre' 동사 사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 가운데 하나인 이 동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복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6주차]

6주차 튜터링은 은유적 표현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른 사물 및 특성에 비교하는 것부터, 사물의 영향을 직접 느끼고, 사물의 일부나 특징을 들어서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어에서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들을 모아보고, 이를 직접 자신의 작문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7주차]

작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는 철저입니다. 몇주간 작문 숙제를 내주고 이를 철칙하면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틀리는 철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7주차 수업은 자주 범하는 철자 오류를 중심으로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명사부터, 동사, 형용사 및 성수일치 등을 설명하였고, 작문이 끝난 뒤 반드시 되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철자 오류가 너무 많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에 기본이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8주차]

4주차 튜터링에서 진행했던 감정 표현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무서움, 부끄러움, 끼쁨, 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 기본적인 감정 표현 단어, 어구,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 및 감정을 유발하는 분위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운것을 직접 작문에 적용하여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것으로 튜터링을 마무리했습니다.

[9주차]

9주차에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논술시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틀을 기반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론-본론-결론을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관용어구, 접속사 등을 확인하고, 각자 자신의 작문에 이를 직접 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주차]

기말 시험 준비에 앞서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시간에 배운 표현들을 사용하여 '학교 폭력'이라는 기말 시험 주제를 가지고 작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정리하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작문할 지를 논의하였습니다. 개요 작성을 마친 뒤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을 정리하여 복습하였으며, 집에서 작문한 것을 첨삭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소감 및
종합의견

※ 튜터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과 튜터링의 효과 등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접하고는 의미있는 일이라 꼭 한 번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하는 분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10주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향상되는 튜터들의 실력을 보면서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번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고 따라온 튜터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튜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튜터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튜터링의 가장 명확한 효과는 튜터의 실력 향상입니다. 매주 작문 숙제를 첨삭하면서 느낀 점은 갈수록 실력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튜터의 어휘력 및 표현력은 물론 글의 논리성과 간결함도 한층 나아졌습니다. 또한, 튜터는 올바른 학습 방향과 피드백을 제시함으로써 튜터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튜터는 튜터링을 준비하고, 튜터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히 이해를 해야만 이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튜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튜터링의 가장 큰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 활동사진(가로 400px 이하)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자 이상)



10주간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의미있는 활동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마다 한 팀만 튜터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튜터링 규모를 더 늘려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카페

초급아.인어읽기와쓰기(2)(강상욱).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글로벌)

呂 출력하기 | 달기

10강상욱(hsu0****)

http://cafe.naver.com/hultutor1402/472

결과보고서 (튜터 작성)

항목	내용
튜터링 과목	초급아.인어읽기와쓰기(2)
튜터 이름	강상욱
소속/학번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 20100002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541-004098 / 강상욱
튜터링 기간	9월 11일 ~ 11월 27일 (총 10회, 20시간)
튜터링단	김서영, 이경재, 임지환, 정은주, 최호승, 한준범
튜터링 보고	

튜터링 수업을 진행했던 과목은 초급아.인어읽기와쓰기(2)였습니다. 초급이지만 2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수업은 할 수 없고 튜터들의 실력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가볍게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테스트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테스트 한 후 튜터들의 실력에 맞게 레벨을 수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급아.인어읽기와쓰기(2) 수업이 2개의 수업으로 나뉘는데 튜터 6명 중 1명이 한국인 교수님, 5명이 원어민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먼저 2가지의 교재를 모두 살펴본 후 공통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 교수님께 맞춰서 문법과 어휘 수업을 진행하였고, 원어민 교수님께 맞춰서 회화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가량 수업을 할 때 1,2교시로 나누어 1교시에는 회화수업을 진행하고 2교시에는 문법 및 어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주차]

첫날에는 튜터들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어 어순과 읽기지로 독해를 테스트 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튜터들의 전반적인 읽기와 쓰기 실력을 알게되었습니다. 1교시는 튜터들이 아직 인도네시아어 기본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들과 인도네시아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해주었습니다.

2교시는 문법 시간으로 인도네시아어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접두사를 수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한 단어에 접두사가 붙어 여러 형태의 뜻으로 파생됩니다. 접두사 ber-가 붙으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수업했습니다.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고, 이 4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문맥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문을 통해 이해를 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어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의 어순을 파악하고 읽기 자료를 통해 한번 더 이해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2주차]

1교시 회화수업을 음성파일을 이용하여 인사에 관한 모든 표현, 상대방을 축하할 때 쓰는 표현, 감사인사를 할 때 상황에 맞는 표현을 수업하였습니다. 먼저 음성으로한국어 뜻을 붙여준 다음 그 뜻에 맞게 튜터들이 인도네시아어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0주차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회화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르친 대표적인 표현으로 Mohon maaf lahir dan batin. (저의 실수와 무례함을 용서하세요.), Selamat idul Fitri. (세해인사), Terima kasih atas perhatiannya.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2교시 문법시간에는 ber-접두사를 복습하고 me-접두사를 수업했습니다. 가장 큰 그램으로 어근에 ber-접두사는 자동사의 형태로, me-접두사는 타동사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Me-접두사, me-동사는 ber-동사와 다르게 문장의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점을 수업했습니다.

[3주차]

1교시는 실생활 인도네시아어 시장에는 총 14개의 문장을 학습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할 때 쓰는 표현, 상대방을 안부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을 수업하였습니다. 3주차 회화 수업은 음성파일이 난이도가 높아 튜터들이 듣고 적을 때 어려움을 느꼈고 여러 번 반복청취하고 여러번 들어도 단어를 유추할 수 없는 단어들도 등장하여 튜터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가르친 표현은 Lupakan saja nggak masalah.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표현 Lumayan baik. (그럭저럭 잘 지냈네요.) 등 그리고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네시아어 구어체 표현까지 수업하였습니다.

2교시 문법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ber-동사와 me-동사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Ber-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me-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ber-동사와 me-동사의 차이점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주차]

1교시 회화시간에는 헤어질 때 인사말,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 그리고 현지 학생들이 주로 쓰는 구어체 표현을 수업하였습니다. 상대방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 *Sampai bertemu lagi*(포토자), *Dadah*(안녕) 등과 같은 구어체 표현을 수업하였습니다.

2교시 문법 시간은 지난 시간 학습한 me-동사의 변화를 잘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me-동사를 가진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법과 me-동사가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주는지 수업하였습니다. 먼저 me-동사는 기본 단어에 붙은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분기 자로서 me-동사가 안겨있는 구절을 접했을 때 상대방에게 해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 4가지의 의미를 알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도네시아어를 풀이할 수 있다고 수업하였습니다. me-동사의 4가지는 크게 1. 도구를 이용하다 2. ~로 향하다 3. ~가 되다 4. ~처럼인데 각각의 특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예문을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me 동사의 수동태화를 살펴보면 주어가 1.2인칭일 경우 필수문이 있을 때 그 밑에서 목적어+주어+동사의 어근 이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이고 주어가 3인칭, 사람 이름일 경우 목적어+di+동사 어근+주어 라고 수업했습니다.

[5주차]

5주차 수업은 그 다음주가 중간고사인 관계로 조금더 언어위기와쓰기(2) 과목에 대한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했습니다. 1교시와 2교시 모두 조금더 언어위기와 쓰기(2) 수업시간에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한원인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내용이나 튜터들이 시험에 예상 문제들을 직접 만들고 모르는 지문이나 어휘를 질문하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문답하는 형식으로 중간고사 대비 수업을 하였습니다.

[6주차]

1교시 수업은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볼 때, 취미를 물을 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표현을 수업하였습니다. 가르친 표현들은 Anda sudah menikah? (당신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Ya, saya sudah menikah. (네 결혼했습니다.) Belum, saya belum menikah. (아니요, 전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alau hari libur biasanya ngapain? (저 휴일에 주로무엇을 하시나요?) 등의 표현을 가르쳤습니다.

2교시 문법시간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 pe-동사 pe-an 접두접미사 명사화인데, -an접미사로 인한 의미형성 법, ke-an 추상 명사화인데 등을 수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e-an이 추상 명사가 되는 것들을 설명 했습니다.

[7주차]

7주차 튜터링 시간은 2시간 모두 문법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접사 me-kan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두 단어가 어는 것이 먼저 나오는지 따라 의미자기가 나기 때문에 문법 수업만 하였습니다. 먼저 수업은 ber-동사와 그 뒤에 배웠던 me-동사를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될 me-kan 동사를 수업했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 5가지 의미들은 곧바로 확인할 수 없고 문맥상 흐름에 맞춰서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me-kan 접사가지는 의미를 논리상 파악하고 특히 결함을 늘려야 한다고 튜터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8주차]

1교시는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사람들이 많이 쓰는 간단한 표현을 가르쳤습니다. Orang itu kurang baik. (저 사람은 별로야.), Anda sangat sopan. (참 친절하군요!), Dia agak sombang. (그는 좀 우렁차네.), Guru itu lucu sekali. (저 선생님은 참 재밌으셔.) Beliau sangat halus. (저 분은 참 고상하셔.), Dia kasar sekali. (그는 매우 거칠어.) 등의 표현들과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들 수 있는 예의 바른 표현들도 가르쳤습니다.

2교시 문법 시간은 관계사 'yang'에 대해 수업했습니다. yang의 가장 기본적인이고도 중요한 특성은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두 개의 문장 1. Perempuan itu cantik. (이 여성은 아름답다.) 2.Perempuan itu bernama Juwita.(이 여성의 이름은 Juwita이다.) 이 두 문장을 이으면 어떻게 되는지 yang을 사용하여 문장을 이어보면, Perempuan yang cantik itu bernama Juwita.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이 아름다운 이 여성의 이름은 Juwita 이다.'로 할 수 있습니다. yang은 복잡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yang의 해석 법은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튜터들에게 인지 시켰습니다.

[9주차]

1교시는 가족 관계를 묻는 표현과 상대방이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는 법을 수업하였습니다. Tidak saya anak tunggal. (아니요 저는 외동입니다.)Kamu anak berapa dari berapa bersaudara? (당신은 형제 간 몇 번째입니까?) 같은 표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의 문문 Apakah-? 에 대해서빠드리기 쉬운 표현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교시 문법 시간에는 ke-an 접사와 ter-접사 부분을 수업했습니다. 먼저 ke-an 접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추상명사'가 되고 ke-an의 두 번째 특성은 수동태화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ke-an 속에 들어있는 어근 자체가 동사와원사 둘 다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원 수 없이 문장 전체를 통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ter- 접사는 ke-an 접사와 유사하지만 문장을 만들 때 ke-an 수동태화는 왜 문장 속 상황이 어긋나 되었는지 뒤에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지 않고 끝내버려도 되는 문장이 되지만 뒤에 반드시 이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0주차]

1교시에는 기본 의문사 표현들을 최종 정리하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습니다. 표현들은 Boleh izin ke air? (화장실 좀 가도 되나요?), Bolehke belakang?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등의 표현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게될 Boleh saya bertanya? (질문 해도 될까요?) 같은 실용적인 표현들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화 수업이다 보니

지금까지 했던 표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교시 문법 시간에는 여태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er동사, me-i me-kan 그리고 yang의 쓰임, 마지막 시간에 배운 ke-an, ter까지 한꺼번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ter와 ke-an은 모두 수동의 의미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는 동사의 뜻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유'라는 것. 다시 한번 읽고 넘어 갑니다. 이 큰 틀의 문법만 제대로 학습하고있으면 앞으로 배울 문법의 기본기는 모두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가장 열심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마지막 튜터링 수업을 끝냈습니다.

소감 및 종합의견

저도 1학년때 튜터로 활동하면서 튜터링을 처음 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튜터가 수업을 몇 번만 하고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튜터링 장학금을 받는다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고 나니 물론, 그러면 인지도만 튜터링에 대한 애정없이 그저 우리 튜터들을 장학금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 같아 아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튜터들에게 튜터링이 그런 기억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장학금 관련된 부분을 모두 공개하고 물론 급진적인 것이 다가 아니지만 저희 팀은 들어오게 될 튜터링 장학금 60만원 중 58만원을 저번식사비 및 공채 구입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만큼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것이 아닌 진심으로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임했고 저번식사 시간에 수업 외적인 이야기 그리고 과-산배 화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 혼자 예쁘도 튜터들이 안 따라오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튜터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와주어서 저도 더 힘이 나서 신나게 했던 것 같은 튜터링이었습니다.

제가 튜터링을 한다고 하니 혹자는 튜터링을 왜 하느냐 그 시간에 스벅이나 키우라는 소리를 종종 하는데 저는 스벅 같은 그런 것을 떠나 진심으로 했던 튜터링이 학창시절 제게 스벅 그 이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튜터링 첫 주의 수업 사진인데 저와 튜터 모두가 긴장을 많이했고 지금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색했던것이 웃웃하 이 사진을 올립니다^^

다른 팀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강의실 문제를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저희 팀은 강의실을 매주 그 전일에 예약을 다 해 놓고 수업을 진행하여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튜터들과 공간시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주 목요일 저녁 늦게 튜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날 튜터들이 수업이 너무 많다보니 조금 피곤해 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건의 하는 것은 다음 튜터링 때는 예를들어, 현재에는 1주일에 2시간 수업이면 항상 2시간 연달아서 하루를 정해이 하는 반면 1주일에 월요일 1시간, 수요일 1시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절하여 할 수 있으면 자투리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이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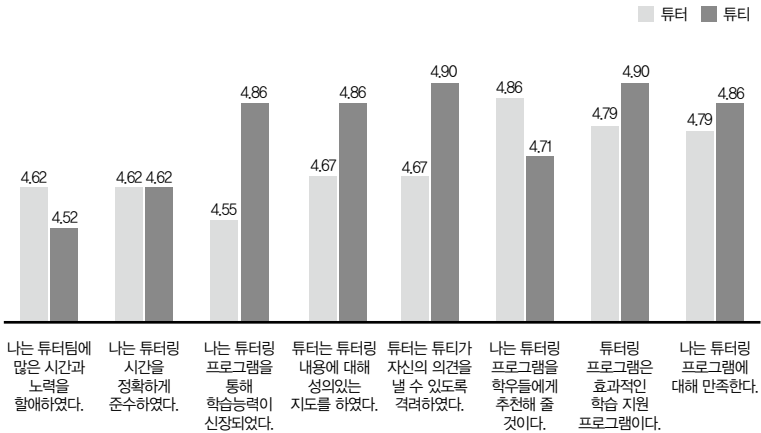
튜터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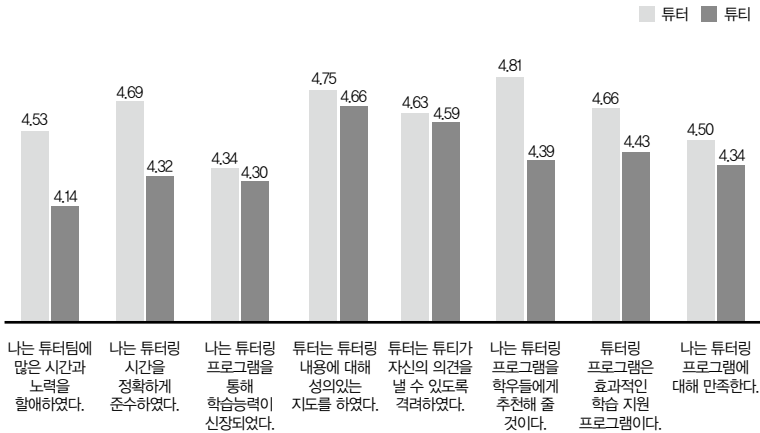
1. 2014년 1학기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2014. 6. 15 ~ 7.15	
응답자 수	튜터	튜티
	29	21



2. 2014년 2학기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2014. 12. 14 ~ 2015. 1. 15	
응답자 수	튜터	튜티
	33	45





튜터링 프로그램 이수 소감문

1. 튜터

2. 튜티

|||||



김동영 튜터

_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 10학번

영한순차통역(2) (2014학년도 2학기)

튜터링으로 통역에 날개를 달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인 2010년 튜티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대부분 동기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1학년이라 통·번역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수업에 계속 임하였고, 처음 접하는 교수님의 교수법에도 적잖게 당황하였다. 하지만,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튜터 선배의 튜터링 하에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스타일을 익히고 공부방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학기말에는 기분 좋은 성적으로 방학을 맞이할 수 있었다. 4년이 지나 복학을 한 저는 통역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며 그때 제가 받았던 도움을 통해 통역 수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고 싶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통역 수업을 두 차례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튜터링의 총괄적인 개요를 짜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차 학습 방향을 설정하였다. 튜터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통역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모든 교수님이 한영, 영한 관계없이 항상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통역을 처음 듣는 2학년 학생들의 대부분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신감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듣지 못하거나 제대로 1:1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져 통역을 망치게 된다. 매주 차 튜터링 프로그램에는 항상 이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긴장감을 풀 수 있도록 약간의 근황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차에 할 내용에 대한 단어 및 표현 정리를 미리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줄이고, 표현을 정리하면서 대응되는 어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주며 문장을 다듬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였다. 통역하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통역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것도 마치 아는 듯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만들어 내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감’과 더불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주제별 ‘표현, 어휘 및 시사점’ 정리였다. 뉴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시사적인 내용은 그 제재를 크게 덩어리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 분류 속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고,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 이를 평소애 준비해 두지 않으면 수업이나 혹은 실전 통역에 임하였을 때 당황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며 결론적으로는 통역을 망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주차에 하게 될 영상을 미리 들어보고 튜터링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휘와 표현을 준비를 해 갔다. 이를 통역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외우고,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통역에 임하였을 때는 표현을 숙지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상당히 능숙하게 해냈다. 한 번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후에 나오는 표현들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며 통역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튜터인 내가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 있더라도 내가 정리를 하면서 내 스스로의 공부도 되면서, 튜티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를 하였다. 시사점의 경우도 표현 정리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 시사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통역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물론, 과학이나 기술 영역의 내용에서 이에 대한 바탕 배경 지식을 모두 갖추기란 사실상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나 경제 내용인 경우에는 이에 쓰이는 한국어의 표현과 현재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익히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에 앞서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였다. 튜터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매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현재 경과까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며 통역에 대한 대비와 함께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튜터링에

포함하였다.

전체적인 튜터링 과정은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수업 커리큘럼에 좀 더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튜터가 교수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더불어 다른 튜티들도 한 명이 통역을 하면 이때는 모두가 교수의 시선이 되어 그 문장에 대한 크리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크리틱을 바탕으로 잘 다듬어진 문장을 다시 발표하였던 튜티가 정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반부 1시간의 튜터링을 진행하였고, 후반부 1시간은 관련된 주제의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처음 받아들이는 낯선 영상에 대한 통역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한 통역 이상으로 실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역 상황까지도 연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서로의 문장을 크리틱하면서 자신의 통역 내용과 다른 학생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고쳐 나가는 상호 작용적인 학습을 통해서 반복해서 동일 문장을 다루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튜터링을 마무리로는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시사점과 관련 어휘 및 표현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매주차 튜터링을 마무리하였다. 간혹, 과제 혹은 그룹 통역이 주어졌을 경우 튜터링에서는 이에 따라 서로 크리틱을 하고 준비를 하여 수업에 임하였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튜터와 튜티가 함께 준비를 하였다.

수업과 유사하게 진행 방식을 택하되 내가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튜터링 앞과 뒤에 붙여가며 튜터링을 한 학기 동안 해본 결과, 튜티들 모두 수업에 임하였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우들의 문장을 크리틱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어서 튜티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또한, 한 번 정리를 하였던 표현과 어휘들이 수업 시간에 다시 나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우들에 비해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잘 따라오지 못했던 튜티들이 익숙해지고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니 튜터링을 하면서 왔던 고생이 한순간에 보람으로 바뀌었다.

한 학기 동안의 튜터링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은 튜티에게서 찾은 것도 있지만, 튜터 내 자신에게서 찾은 부분이 가장 많다. 4명의 소수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서는 많게 느껴졌던 튜티들을 책임지고 한 학기 동안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 학기를 다니는 동안 내내 나를 사로잡고 있었고 때로는 부

담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이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날개를 달아 줘야 한다는 책임 하나가 있었기에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튜터링 프로그램의 취지는 튜터가 튜티를 잘 이끄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돌아보면 튜티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이 튜터링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책임감을 더욱 기를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무엇보다 튜티들 간에 서로 더욱 친해지며, 서로 거리낌없이 크리틱을 하며 상부상조하고, 튜터와 튜티들 간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경험으로 남았다는 부분이 이 튜터링 프로그램의 존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저학년의 학우들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후배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고학년의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김수민 튜터

—동양어대학 터키어과 13학번

초급 터키어 문법 (2014학년도 1학기)

튜티에서 튜터로

대학교에 입학한 후 1학년 동안 터키어 튜터링에서 튜티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튜티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배였는데, 다른 튜티들과는 달리 시험문제도 자발적으로 만들고,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따로 불러 수업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튜티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의욕이 없어질 때에는 계곡이나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다시 튜터링을 재기하셨습니다. 물론 탈도 많고 일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항상 학과 쪽지시험 꼴등이었던 제가 과내 수석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값진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학과 내에서 동기들뿐만이 아니라 선후배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또한 튜터링 제도 덕분입니다. 이런 좋은 기억 덕분에 저는 이번 기회에 튜터링 활동을 튜티가 아닌 튜터로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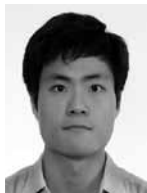
터키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외워야 할 문법이 많다고 생각하여 문법을 꺼립니다. 하지만 터키어는 규칙체계와 원리가 있는 언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만 파악하게 된다면 오히려 흥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법 체계를 정립한 후에는 터키어 문장을 접할 때에 어려움이 덜어집니다. 따라서 제 튜터링은 터키어의 구성 원리를 알고 터키어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터키어 튜터링의 목표는 단순히 튜티의 문법 지식의 습

득이 아니었습니다. 1학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튜터로서 더욱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을 더욱 더 보완하며 튜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튜터링은 저의 터키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튜터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튜티보다 튜터가 훨씬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튜티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튜티였던 작년, 저의 전 튜터로부터 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끝난 후, 튜티들 모두가 쉬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 튜터링이 위기에 빠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튜터링은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소통이자 배움의 장소였기 때문에 함께 소풍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맛집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기적인 시험 문제를 만들어 튜티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튜터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튜티뿐만이 아니라 튜터인 저까지도 해당 과목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튜터링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튜터링 프로그램 전체 3위, 튜티 평균 성적 A0)으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더욱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저희 튜터링 팀은 방학 동안 만나서 회식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는 등, 친목도 다지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1학기에 튜터링을 할 때, 튜터에게 필요한 자질과 튜터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하는 사람이 아닌 고민 상담을 해 주면서 더욱 튜티들과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학과 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 튜터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튜터링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이 융통성이 없고 너무 까다롭게 이행해야 함을 불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발적으로 학과 내 튜터링을 해 본 결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까다로운 튜터링 기준과 절차 덕분에 더욱 더 효율적인 튜터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학교 튜터링 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잘 따라와 준 튜티들과 저를 이끌어주신 저번 튜터링 튜터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 감상문을 마칠 것입니다.



김우림 튜터

—경상대학 경제학과 10학번

경제학원론(1) (2014학년도 1학기)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즐거움

제대한 지 불과 3개월이 조금 넘는 2014년 4월, 갓 대학생이 된 새내기들이 듣는 경제학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를 떠올려보면서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같이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침 처음 대학교 수업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명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느새 잊고 있던 경제를 배우던 열정적인 마음과 함께 어깨를 짚 움켜지는 것 같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과에서 전과해서 다시 시작하는 학생,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우보지 못한 학생들, 스터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추려서 10명의 튜터를 구성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만큼, 소수의 스터디보다는 보충수업 형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는 몇 주 동안, 저는 튜터들이 경제가 신문에서 어려운 용어와 분석들이 쏟아지는 분야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경제 원리들을 재밌게 발견해 보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인 경제에서 좋은 학점을 받았지만, 가르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튜터들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던지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가정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튜터들이 과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으로 경제학개론이지만 한참 부족한 제 실력을 느꼈고, 자극받았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수업방식을 상호소통이 가능하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가기 위해 수업준비를 토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전 주에서 함께 경제개념을 고민해 보고 그 다음 수업에서 정리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가르치는 것은 곧 배워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덧 무거운 책임감을 살짝 벗어나자 매번 만나는 튜터링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저와 튜티들이 모두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는데 어느덧 익숙해지자, 곧 말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현상을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고하는 방식을 맞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다른 것을 제쳐 두고 수업을 준비했던 고생들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튜티들이 조금이나마 성장한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금방 중간고사 기간은 다가왔습니다. 튜티들이 재밌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경제학 대체 졸업시험인 테셋(TESAT) 문제를 주로 풀어 보았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시험을 객관식으로 치르겠다는 공지했기 때문에 테셋 문제가 비슷한 유형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시험은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고 그동안 조금씩 경제학에 재미를 키워 나가던 튜티들은 상당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한동안 제 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침울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생각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하자 튜티들도 바쁜 학교행사 중에도 꾸준히 모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이론에서 생산자이론으로 넘어가자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며칠 동안 경제 게임을 만들어 튜티들이 팀을 짜서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생산자 입장이 되도록 했을 때, 재밌고 쉽게 많은 것들을 이해되었다고 말해 주었던 수업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지 고민을 많이 해서 튜티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튜터링에 참여하면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항상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단순히 주입식 학습이 아니고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고치는 상호설명식 학습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알아가는 것에는 분명 즐거움이 있습니다. 튜터링에서 지금까지 제 학습방법을 다시 돌아보는 시

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교실과 카페에서 함께 배울 때 더욱 많은 자극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터로서 튜티들을 가르쳐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진짜 심화된 학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 튜터, 튜티를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튜터링을 참여하면서 학습능력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신입생 새내기들과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대학생활의 사소한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여한 튜터링 프로그램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김학래 튜터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 09학번

면역학 (2014학년도 2학기)

경험과 무경험의 차이

한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저에게는 대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인데, 학교를 졸업하기 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수업자료와 학습내용을 준비하면서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난 뒤에는 다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튜터링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작년 2학기에 튜터링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으며, 튜터링을 진행하는 모습과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나도 나중에 해 봐야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학기에는 졸업논문 발표 등 준비할 것이 많아 2학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해당 학기에 진행되는 과목만 할 수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할까 생각하던 중, 제가 공부할 때 어렵지만 재미있었던 면역학 과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튜터들의 성적이 잘 나와야 저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데 제가 도움을 준다면 후배들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튜터링 1주차에 모였을 때 무엇부터 알려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준 적은 많으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 형

식으로 해본 것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과 친해지고 요령도 생기다 보니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수업자료도 차츰 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매우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모여 내용을 알려주고, 모르는 것에 대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생기는 동시에 저도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대충 넘어갔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보고 이해하였으며,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구성도 짜 보았습니다.

제가 튜터링을 진행했던 방식은 정규수업 후에 모여서 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교수님과는 다른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셔서 어떤 부분이 빠지고 들어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요인이 됐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튜티들에게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서 각각의 각론을 이해하는 것이 면역학을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 텍스트의 내용도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짚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한 단락을 설명한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튜티들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수업방식에 대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튜티들의 학습능력이나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해하지 못했던 튜티가 있으면 다시 알려주려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중요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좋았던 점은 후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던 후배나 이야기를 못해 봤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가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친한 친구들, 후배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게 돼서 같은 과라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번이 마지막 학기여서 전공 수업도 듣지 않아 후배들과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튜티를 모집한다고 글을 게재하였을 때, 원래 알던 후배뿐 아니라 몰랐던 후배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어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몰랐던 친구들이 많아서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다리를 타서 뿔힌 튜티들과 모여 10주 동안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튜터링을 하면서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상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짓을 하거나 졸고 있는 모습 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튜터링을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였는데 저녁식사 직후이기도 하고, 목요일을 바쁘게 보낸 후 튜터링까지 해야 하니 피곤해했던 튜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때뿐이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튜티들의 친구들도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곤 했는데 열심히 안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지인이 튜터를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튜티만 뽑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치를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도 작은 부분에서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는 종료가 돼서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지만 대학생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튜터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튜티모집 때 신청해 준 튜티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직 기말고사가 2주 정도 남았는데 모두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선 튜터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10학번

재무관리 (2014학년도 1학기)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

이번 튜터링의 시작은 사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였다. 때는 20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친한 13학번 후배들이 나에게 강의 추천을 부탁하였었다. 당시 후배들은 경영학과와 전필과목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소문난 재무관리 수업을 고르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아마 1학년 때 선배들이 많이 겁을 주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 후배들을 보면 나의 과거가 생각났었다. 나 역시 맨 처음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 수업을 듣기 전에 겁부터 내곤 했었다. 하지만, 비록 나 역시 재무관리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워하긴 했지만 막상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지레 겁먹고 포기할 과목은 아니었다. 난 이 후배들에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달래면서 내가 개인교습을 시켜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던 중 튜터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왕 후배들을 가르칠 것, 제대로 체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면서 해보자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맨 처음 5명으로 시작하던 수업은 1주, 2주 지나면서 하나 둘씩 튜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8명으로 튜터링을 마치게 되었다. 결과는 놀랄 만하였다. 나는 8명의 튜티들을 모두 A⁺ 혹은 A⁰로 만들고 우수 튜터링 팀 시상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엔 겁을 먹는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어 주겠다고 시작하였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성과가 나올 줄은 몰랐었다. 지금 다시 돌아해보면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었던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데도

귀찮은 내색 없이 잘 따라온 튜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다.

나는 수업교습방식은 선행학습이 아닌 복습방식이었다. 매주 교수님께 수업을 들은 튜터들은 매주 재무관리 책에서 몇 가지 선발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해야 한다. 난 이 문제들을 튜터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마다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가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재무관리 과목은 그 용어와 수리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다. 보통 학생들은 일단 수업 중에 교수님이 쓰시는 판서를 받아쓰기는 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것을 다시 펴면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에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리고 보통 수학과목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은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처음 재무관리 수업을 들을 때에도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르는 개념을 콧속 집어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혼자서 다시 끙끙대면서 풀기엔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자칫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기억하던 나는 후배들과 그 주에 진행되었던 과목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그 개념을 알기 쉽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내가 맨 처음 공부하였을 때 헛갈렸었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은 특히 강조하면서, 마치 고등학교 수학 인터넷 강사가 하듯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였었다.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쉽게 전달되려면 무엇보다 눈높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어떤 선배들 혹은 선생님들은 자신이 과거에 그 과목을 어렵지 않게 공부하여서, 혹은 배운 지 너무 오래되고 익숙하여 이젠 너무 쉽게 느껴져서 처음 듣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무감하다.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건이 되는 한 끝까지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혼자 던지기만 하는 수업은 좋은 수업이 아니다.

이번 튜터링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치기 만한 시간만 아니었다. 나 또한 배운 점이 많았다. 사실 난 이번 기회가 누군가를 가르

치는 첫경험이었다. 이전에 과외알바를 해 본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알려줄 만한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좀 서툴고 벼벼대기 일수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내 머릿속의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트이기 시작하였다.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였는데,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던 과정이 나의 교수법을 향상시킨게 아닌가 싶다. 이번 튜터링 이후로 난 후배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수업 중에 발표를 하는 등, 누군가에게 나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번 튜터링을 통하여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전엔 내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어 어떠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책임감이라는 것을 요구할 만한 자리에 있던 적이 없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8명의 그룹의 선생님이 되어 그들을 한 학기 동안 지도를 해 보니 알 수 있었다. 내가 비록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서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대충하면 안 된다.

실로 나도 이번 튜터링을 진행하며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재무관리를 다시 공부하였었고, 또 시간이 겹치면 모든 약속을 제치고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나 하나 대중대중 편하게 하면, 8명에게 피해가 간다. 나를 믿는 한 그룹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책임감이라는 능력이 길러졌다.

내가 튜티들에게 재무관리라는 지식을 주었다면, 난 그들을 통하여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라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점도 많기 때문이다.

난 내 친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지인들에게 튜터링 프로그램을 추천하곤 한다. 다른 학우들도 나처럼 책에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을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김형일 튜터

_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11학번

회계원리 (2014학년도 2학기)

나도 함께 성장한 10주

이번 학기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내가 회계원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지식과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후배들이 회계원리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회계원리를 처음 수강할 때는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무척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회계원리는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에야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고 계산도 무척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변의 많은 학우들도 회계원리를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계원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원리 과목을 수강한 이후 회계원리를 처음 수강하는 후배들을 보면 후배들이 회계원리의 내용들 중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언들을 해 주곤 했는데, 학교에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후배들에게 체계적으로 내가 회계원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지식과 노하우들을 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영학 과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튜터링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효과적일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나름대

로는 어떻게 수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었지만, 실제로 튜터링 프로그램의 첫 수업을 진행해 보았더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튜터링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수업 방식이었다. 튜터링 첫 주 수업을 해 보았더니 생각보다 튜티들이 수업을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업 시간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튜티들 모두가 가능한 시간으로 수업 시간을 정하다 보니 튜터링을 저녁 시간에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도 늦고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튜터링에 와야 하는 튜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튜티들이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떻게 해야 튜티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수업 방식을 튜티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기보다 튜티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수업 방식을 변경한 이후로는 튜티들이 수업 시간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수업도 더욱 열중해서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도 원래 예정했던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이처럼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들을 겪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매주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점차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 방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튜티였던 나 역시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매주 공부하면서 회계원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매주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주에 수업할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 나 역시 회계원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튜티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평소에는 만날 일이 많지 않았던 튜티들과 매주 한자리에 모여서 수업을 하면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보다 한결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10주차까지 모두 진행하면서, 튜터링 프로그램이 아니었

다면 하기 어려웠을 좋은 경험들도 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보다 적합한 수업 방식을 찾을 수 있었고 회계원리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튜티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매주 정해진 시간까지 튜터링 수업을 준비해 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 역시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히 좋았던 점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튜티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튜터링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매주 튜터링 수업을 준비해 갔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10주차 튜터링을 마치면서는 거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준 튜티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처럼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과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튜터링 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배규식 튜터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신호 및 시스템 (2014학년도 2학기)

힘모아 채워 나간 ‘2% 부족’

2학년에 복학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2학기에 배웠던 ‘신호 및 시스템’ 과목은 더욱 열심히 하여 좋은 성과를 냈던 과목이었다. 3학년이 되어 군 복무 시절 입학한 후배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나는 1학기 중반에 가서야 우리 학교에 ‘튜터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튜터링을 하기로 마음먹고 2학기 시작할 때를 전후해서 나는 튜터링 과목으로 ‘신호 및 시스템’을 선택했다.

작년에 이 과목에서 받은 학점도 조건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의 특성상 나와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는 후배들과 튜터링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더 친해져서 앞으로도 후배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선배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었다. 또, 평소에 그런 진로를 위한 과목이 학과 커리큘럼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앞으로 스스로도 신호 및 시스템을 응용한 이산신호, 통신공학, 디지털통신 등을 공부할 수 있게 약간 더 어려운 내용을 접할 기회를 후배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신호 및 시스템 분야는 내가 그나마 자신 있고 좋아하는 분야였고, 나 스스로도 튜터링을 하며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었다. 튜터를 모집하는 과정이 의외로 조금 알고 있었던 후배 다섯 명이 너무 쉽게 내 제의에 응해 주어서 우리 팀은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한다는 것에 처음 접해보는 나로서는 신선한 경험이기도 해서 후배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기도 해서 이래저래 시작하게 된 튜터링이었다. ‘신호 및 시스템’이란 과목을 작년에 내가 공부했었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해 그냥 어느 정도만 알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5명의 튜티들에게 그 부분을 이해시킬 때는 내가 그냥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튜티들은 모두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누구는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고 어느 누구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한 튜터의 수준 높은 이해도가 필요했다.

우리들의 수업은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주로 공학관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나의 튜티들은 ‘신호 및 시스템’ 수업을 듣는 귀여운 후배들이었다. 수업을 하면서 내 설명을 이해하는 속도를 보며 그들의 실력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중 수능 때 수리영역(나)형을 준비했던 호동현 학생은 컨벌루션, 푸리에 급수와 같은 수식 계산 과정에서 적분이 들어가는 계산을 할 때 무척 힘들어했다. 다른 친구들은 보통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을 혼자 처음 접해 봤던 것이 큰 요소였던 것 같다. 하지만 동현이를 위해 수업시간 종종 적분의 기본개념을 따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을 짚어 주었다. 동현이를 위주로 수업 속도를 맞추고 친구들도 동현이를 위해 자기들도 그 내용을 잊었다면서 동현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같이 수업을 들어주었다. 학생들의 그런 모습은 나를 훈훈함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게 했다.

나도 작년에 신호 및 시스템을 공부할 때 동현이처럼 문제풀이에 쓰이는 기본개념이나 공식을 모르거나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잊어버려서 혼자서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혼자 해결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면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참 아름다웠다. 우리들은 튜터링 주간보고서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 한 명이 쓰도록 하자고 했는데 항상 수업시간 전에 학생들끼리 가위 바위 보로 정했다. 나의 튜티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출석률로 꾸준히 수업을 함께했다. 교내활동으로 어쩔 수 없이 수업에 간혹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를 빼곤 말이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숙사에 있는 날은 튜티들에게 기숙사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런 말에 응해줘서 정말 고마웠던 기억도 난다. 우리들은 그냥

선후배 관계나, 튜터와 튜티의 관계가 아니라 대학 내에서 뭔가 더 끈끈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로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 그런 기간이었다.

튜터링 수업을 하는 동안 가장 떨렸을 때는 그들이 중간고사를 본 후였다. 과연 성적이 잘 나왔을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다. 다음 수업 때 물어보아지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나에게 처음 튜터링 수업을 해 보자고 권했던 박배선 학생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 글을 보고 나는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받았다.

‘튜터 규칙이 형 덕분에 중간고사 대박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줬는지 모른다. 나의 첫 튜터링 수업은 정말 허접했다. 내가 대충 안다는 것만 믿고 이해 능력이 각각 다른 그들을 모두 이해시키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업부터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쏙쏙 준비를 했는데 나 역시 모든 문제를 잘 다루는 건 아니었고 그리 완벽한 튜터가 아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려나 걱정도 되었다. 또 다른 과목 과제나 공부를 미루고 확률과 통계 튜터링 수업을 위해 남아 공부했는데, 그 시간에 그들이 그만큼 얻어갔는지 항상 걱정됐다. 하지만 튜티의 그 한 마디에 모든 나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힘이 솟아 그 다음 수업부터는 괜히 이것저것 더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중간고사 때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배선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이 튜터링 수업을 받았던 다른 학생들도 시험을 괜찮게 봤다. 물론 몇몇 친구들은 실수로 실력보다 점수가 못 나온 친구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동현이는 배선처럼 엄청 우수한 성적을 얻어 나는 무척 기뻐했다. 동현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해 속도와 수능의 수리(가)형 개념이 부족했던 학생이었지만 성적이 더 우수했다는 말을 듣고 뿌듯했다. 동현이가 그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수업 태도 때문이었다. 평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질문을 했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서는 의견함을 잃지 않았다.

5명의 서로 다른 튜티들과 이번 학기에 튜터링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감동과 보람을 느끼고 이런저런 재미난 추억들도 얻었다. 나의 수업을 들었던 튜티들이, 내 후배들이 앞으로 계속 어려운 과제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훈훈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역시 그런 자세를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된 알찬 시간이었다.



송정수 튜터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습 (2014학년도 2학기)

꿈으로 가는 길의 디딤돌

대학 입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저는 낯선 환경, 새로운 배움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실천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한국외대 튜터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과목 공부방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을 때 같은 과 김두형 선배가 ‘회로해석’ 교과목에 대한 튜터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접해 보는 회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튜터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진 튜터링은 미리 회로에 대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후 과제나 복습을 하면서 어렵거나 궁금했던 문제들을 따로 모아 멘토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튜터링을 듣는 저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쌓여서 저는 그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튜터링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또한 꼭 한 번 튜터링 수업을 맡아 이렇게 좋은 활동이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14년 2학기를 마치면 저는 졸업합니다. 그 전에 ‘멘토링 활동을 꼭 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직접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멘토링을

신청했습니다.

멘티 학생들을 모집하고 결정된 순간 ‘책임감’이라는 무게에 막연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걱정으로 바뀌어 갈 때쯤 예전에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 시험을 볼 때보다 더 열심히 제가 가르치게 될 과목에 대한 준비와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한 달 계획표를 짜고 다시 그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걱정은 조금씩 “내가 멘티들에게 이전에 내가 멘토링을 받으면서 느꼈던 전공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열로 바뀌어 갔습니다.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세운 저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절대 멘티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간만 채우는 수업을 만들지 말자’와 ‘기초뿐만이 아니라 심화까지 모두 겸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적극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수업을 뽁뽁하게 진행했으며 멘티들이 멘토링 수업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공부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숙제 분량을 내주고 점검도 엄격히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멘티를 모집할 때부터 미리 공지하여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오를 초반부터 심어 주고 멘토에 대한 믿음도 함께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멘토링 시간은 멘티들이 멘토링 수업인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들은 다음 요일인 목요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40분은 수업시간에 나온 과제에 대한 질문시간으로 정했는데, 이는 멘티들이 목요일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 뒤 과제를 어느 정도 마쳤을 때 좀더 어려운 질문을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했던 것이 멘토링 수업의 효율성을 높인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복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과제가 나오면 일주일 지난 뒤 제출시한 하루 전날 밤에 부랴부랴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숙제를 해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그것만 바로잡아줘도 50%는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멘티들이 수업을 끝내고 바로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준비해 와 멘토링을 통해 채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앞의 1시간 20분은 다음 주에 배울 학교 수업에 대한 예습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리 알고 참여하면 수업 집중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전공과목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알차게 보낸 2시간은 멘티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자세와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해 주었고, 질문을 통해 해당 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멘토링보다 좀더 숙제를 많이 내고 숙제검사도 빠빠하게 했습니다. 미진하면 5,000원이라는 벌금을 걷는 바람에 멘티들이 초반에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그만큼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준비가 안 된 수업자세이므로 질문이 없으면 수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강력한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멘티들은 멘토링 수업이 끝나는 12월까지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규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멘티들을 편안하게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했던 점이 멘토링을 유지시켜 준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빠빠한 학습일정을 계획하고 심화질문을 대비하기 위해 멘토링 수업시간의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취업준비와 학교 생활을 함께 해야 했지만 짹짹 잠까지 들어가면서 멘토링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12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연결다리나 디딤돌이 될지도 모를 ‘함께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멘티들 모두가 A+라는 성적을 보고 환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와 멘티들이 함께 만들어 갔던 멘토링 활동이 가장 값지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 속에서 진심으로 그 꿈을 지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찬 시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멘티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멘토링 활동들이 한국외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용 튜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09학번

보험수리학 (2014학년도 2학기)

대학 때 꼭 해봐야 할 4가지

이번 튜터링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유는 제가 그 당시 무슨 생각으로 튜터링에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튜터로 지원을 했는지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당시 저는 학점도 매우 낮았고 군대는 가기 싫었고 매우 철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졸업을 하면 뭘 할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채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정신 차려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 입대를 하고 2학기에 복학하는 바람에 결국 2년 6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얻은 것은 금융자격증과 컴퓨터자격증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쓸데없고 학교 전공과목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무기력한 4학년 1학기 생활을 하던 중 튜터링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고 튜터로 지원을 해야 하나 튜티로 지원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튜티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렇게 다가오는 계속 똑같은 학교생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튜티로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대학 4학년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튜터로 지원을 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을 가르쳐주

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격대로 무작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 기억도 나지 않지만 성적을 잘 받았던 과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튜터링 신청서를 쓰면서 4학년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이외에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찾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튜터링 과목이었던 보힘수리학이었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단지 노하우와 방향을 잡아줄 뿐이었지만 후배들은 매우 잘 따랐고 제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번에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2, 3학년 때 부족했던 지식에 대해 같이 말할 수 있었고 남자 후배들에게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말고사 때에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며 같이 공부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튜터링 과정에서 카페를 통한 보고서와 댓글 작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후배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댓글을 달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꼭 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캠퍼스커플과 밤새 술 마시기,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튜터링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튜터링을 통해 후배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보힘수리학의 과목 특성상 원어강의이기 때문에 저의 장점인 영어를 살릴 수 있었던 점도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처음 튜터링을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줘야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감은 즐거움과 고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대 등나무에서 했던 튜터링은 잊을 수 없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공부했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는 것이 많았어야 했지만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배운 것이 많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게 튜터로서의 자격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튜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임채민 튜터

_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 09학번

경영통계학 (2014학년도 2학기)

가르침을 통해 배우다

튜터링의 시작

튜터로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경영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에게 전달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에서 상경계열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 경영, 경제 등의 상경계열 전공이 이중전공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인문계, 어문계 위주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학교의 특성상 경영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에 관심이 많고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영학 과목을 수강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없었지만 경영학 과목을 수강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선 후배 중에서 일부가 학습에 애로사항이 많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경영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경영직렬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과목에 대한 복습이나 심화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튜터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경영학을 이중전공하는 학우들이 많은 만큼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명의 튜

티를 모집했다. 이전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변 지인들은 주로 과 선 후배, 동아리 선후배 등으로 튜티 & 튜터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면이 없는 학우들을 튜티로 모집해 튜터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책임감도 더 느끼고 의미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끌고 싶었다.

튜터링 과정

튜터로서 단순히 튜티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요령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다. 경영통계학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경영학 학습 커리큘럼에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튜티에게 요구한 것은 수업시간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튜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튜터링 프로그램의 취지는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튜터링은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튜티가 이전에 과목을 수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튜터링은 먼저 튜티 각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를 정리해서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다. 이 과정은 튜티가 일방적으로 질문에 대한 해답과 해결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튜티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혹은 튜티가 생각한 개인적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튜티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 정답만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아 향후에도 튜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튜터로서의 역할

튜터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튜터는 튜터링 일정과 장소도 미리 정해야 하고 팀원들의

일지가 제때 올라왔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튜터로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튜터링을 진행함에 있어 튜티와의 관계를 유연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튜터가 단순히 정보 제공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튜티와 튜티가 인간적으로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튜티가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과목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튜터링을 통해 튜티가 튜터 선배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학교 생활, 진로 등의 고민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튜터로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세 가지

첫째, 복습의 기회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이수하고 나면 그 과목의 책을 다시 열어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튜터로 활동하면 해당 과목을 복습하고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경영학의 경우 전공심화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 과목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복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학습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둘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맥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과 생활과 동아리를 하지 않는다면 교내에서 인연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교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

셋째,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요즘 대학생이라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책임감이라는 가치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에도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튜터는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전세용 튜터

_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 09학번

생리학 (2014학년도 2학기)

나를 변화시킨 ‘책임감’

예전부터 생명공학과와 생화학, 생리학 수업은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과목으로 많은 학우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공학과 학생들은 생물학적 지식이 대부분이며 화학적 지식이 얇기 때문에 생화학과목과 생화학의 연장인 생리학 수업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암기해 시험을 보는 과목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화학에 흥미를 가져 생화학 과목을 열심히 들었고 연장 과목인 생리학 과목도 다른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암기가 아닌 이해로 문제를 풀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화학, 생리학적 지식이 생명공학과 과목들의 토대가 되며 이를 모를 경우 후에 전공과목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 결과적으로 전공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부터 생리학을 튜터링해서 후배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생리학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튜터링은 한 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비공식적으로 2학년을 상대로 생화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생화학을 통해 생물학에 이용되는 화학적 지식을 공부하게 한 다음 이를 응용한 생리학을 이번 학기부터 정식적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처음 생화학을 비공식적인 튜터링으로 가르칠 때에는 딱히 수업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었고 수업에도 들어가지 않고 1년 전 배운 지식만으로 튜터들을 가르

쳤더니 튜터들도 이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암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학기가 돼서 생리학 과목을 정식으로 튜터링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매주 수업자료를 만들었으며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연습문제도 만들고 해당 수업을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당시 아무리 잘했어도 1년이 지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준이 되려면 단순히 시험을 봐서 A⁺를 받는 것보다 더 심화된 정도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 생리학 수업을 꼬박꼬박 들으며 다른 학생들보다 교수님에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철저히 복습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주 튜터링 시간에 튜터들이 이해하도록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튜터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저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면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튜터링을 통해 내가 수업을 듣지 않으면 튜터들에게 제대로 수업을 해 줄 수 없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생리학 수업의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이렇게 공부한다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생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생리학 튜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으며 저 역시 많이 대답해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렀습니다.

수업자료란 게 원어로 된 책 한 권이라 많은 학생들이 생리학을 어려워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토대가 되어 제2의 튜터가 튜터들 중에서 나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전공에 대한 흥미를 심어줘 과를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공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많아 과 자체의 활력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공학 과목을 재미있게 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전수진 튜터

_동양어대학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과 13학번

초급마인어(2) (2014학년도 2학기)

튜티에서 튜터로, 후배에서 선배로

1학기 여름방학이 다 지나갈 무렵, 2학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학년 후배들의 전공 공부를 도와주자! 올해부터 동양어대는 수시와 정시모집을 달리하여 2학기에는 새로운 과 후배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후배들 중 다수는 우리 전공 언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공 언어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작년 이맘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친구에게 말레이시아어 튜터링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튜터링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인어를 전혀 모르는 서너 명 정도의 후배들과 카페나 스터디룸에서 매주 만나 수업 중 이해가 안 가는 점, 언어나 전공 지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주려는 생각으로 튜터링을 할 생각이 있는 후배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도 11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튜터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들의 전공에 대한 열정에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많은 인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잘 해낼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 후배들에게 학과 수업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이끌어 줄 수 있는 든든한 선배가 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튜터링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1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지만 시간 조율을 통해 튜터링 시간을 정할 수 있었고, 첫 오터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다 보니 튜터링을 할 장소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학습개발원 스터디룸, 비어있는 강의실을 이용했지만 3주차부터 오바마홀 지하에 있는 스터디룸을 알게 되어 이후 이곳에서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10주간의 튜터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초급마인어(2) 수업 진도가 처음 마인어를 접하는 후배들에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 마인어 문법 교재, 수업 교재를 이용해 마인어 기초에 대해 알려주고, 연습문제 및 과제를 만들어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 전에 배운 것이지만, 막상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려니 매주 공부해야 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고맙게도 후배들이 열심히 잘 따라줘서 준비한 수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께 무한한 경외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튜터링을 마치며 드는 생각은 후배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튜터링을 신청하였지만, 제가 배우고 얻은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너무 예쁘고 착한 후배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며 저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는다는 것,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 번 마인어를 복습할 수 있다는 것... 이번 튜터링을 통해 저의 2학기가 풍성해진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후배들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신입생 튜터였던 제가 올해는 튜터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선후배 간의 교류도 늘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튜터링을 통해 후배들이 전공지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마인어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학교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규리, 태우, 재우, 근형, 희수, 연주, 태원, 승훈, 연재, 민선아~, 다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튜터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조서준 튜터

_중국어대학 중국어과 08학번

재무관리 (2014학년도 2학기)

성적보다 더 소중한 인연

생면부지이던 멘티들과 어색한 첫 만남을 한 것이 9월. 어느덧 10회의 모임을 거쳐 벌써 튜터링이 끝났고 2014-2학기가 마무리되면서 한 해는 그렇게나 빨리 끝났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며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매번 생각한다. 소중한 시간을 올해는 튜티들과 알차게 보내 기분이 좋다. 이 글을 적으면서 맨 처음 튜티들을 모집했을 때가 생각한다. 재무관리 과목에 대해 따로 공부를 계속해 왔고 어느 정도 이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튜티들이 전공이 중국어과인 나와 함께 과연 튜터링을 할 까라는 조바심과 함께 연락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난다. 다행스럽게도 착한 튜티들이 하나 둘씩 문자를 보내면서 안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튜티 6명과 10회에 걸쳐서 튜터링을 하게 되었다.

첫 만남이 생각난다. 빈 강의실에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나누었던 어색한 대화들. 지금이야 서로 친해져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곤 했지만 그때 빈 강의실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풀고자 계속 나 혼자 말했던 기억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새록새록 난다.

첫 시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재무관리 어려워요, 여러분”이었다. 재무관리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개념 잡기가 처음에 힘들다. 기업 재무의

경우, 중요한 것은 개념들이 각 챕터마다 연결이 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수업을 따라가기 벅차고 결국 포기하기 쉬운 과목이 바로 재무관리다. 그래서 처음 재무관리 공부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무관리는 특성상 벼락치기가 안 되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튜티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나의 말을 잘 들었는지는 성적이 나와 보면 알겠지. ^^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작 후에도 수업시간 때마다 늘 항상 하던 생각이 있다. 튜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나는 튜티들이 원하는 것을 잘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튜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은 성적일 것이다. 물론 튜터링을 하면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끼리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기 위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튜터가 건네주는 알찬 정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겠지만 그들이 내게 원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얻는데 필요한 something, 바로 재무관리에 대한 학습능력 신장과 함께 실력 향상이 아니겠는가. 내가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공부했을 때 느꼈던 점은 명확한 개념 이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제풀이였다. 나는 학습할 때 게을러서 그날 배운 개념을 그때 바로바로 문제를 풀지 않아 시험기간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튜티들에게 개념 설명과 함께 반드시 문제를 수업시간 때 풀게 하리라고 튜터링 이전에 다짐했다. 10회에 걸친 튜터링 기간 내내 나의 말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다행히 튜티들도 이런 노력을 알아줘서 고마웠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무관리이기 때문이다.

학교 재무관리 수업 때 쓰는 교재를 본 후 문제풀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었지만 주로 응용 문제가 많아서 나는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따로 뽑아서 5~6문제씩 튜티들과 함께 풀며 곧바로 개념이 이해됐는지 그리고 모르는 것은 수업시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튜티들의 학습 이해도를 체크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응용되고 개념 또한 복잡해진다.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어려운 것을 바로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졌지만 다행히 튜티들이 문제를 같이 풀며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뿌듯했다.

중간고사는 다들 잘 봤는데 기말고사와 함께 최종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나도, 튜티들도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같이 재무관리를 공부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4층 사이버관 강의실에 모여서 튜터링을 진행했다. 6시 이전까지 수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강의를 했고 튜티들도 간단하게 음료수와 빵으로 때우면서 2시간 동안 튜터링이 이어졌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튜티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배고플까 봐 음료수와 초콜릿 등도 건넸다. 그러한 사소한 튜티들의 행동들이 배고픔을 잊으며 열심히 강의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튜터링을 통해 나조차 재무관리에 대해 다시금 많은 것을 배웠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친다는 것의 전제는 튜터가 그 누구보다도 쉽게 내용을 설명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튜티만큼이나 튜터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재무관리 수업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다른 2학기 수강과목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다. 아울러 튜티들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튜티들 중 일부는 시험 치기 전날, 그리고 중요한 면접이 있는 전날에도 튜터링에 참가해서 내 강의를 들었고 또 열정적으로 필기를 하며 따라와 주었다.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와 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도 무한 책임감을 갖고 튜터링에 임했던 것 같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과연 튜터링이 가능했을까 생각한다.

필자가 첫 만남 때 처음 한 말은 “재무관리 어려워요”였지만 가장 나중에 한 말은 바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네요. 튜터링을 통해서 재무관리를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같이 가져가요”였다. 튜터링은 이렇게 1학기 만에 빨리 끝났지만 소중한 우리 인연들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다. 그들의 푹망푹망했던 눈망울부터, 월요일 오후 6시의 배고픔, 열정으로 꽉 찬 필기노트, 끄덕임,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 애들아. 1월에 다 같이 밥 먹자 ^^ 밥 사 줄게 !!



조현정 튜터

—사범대학 독일어교육학과 11학번

초급독일어 (2014학년도 1학기)

책임감을 깨달은 값진 시간

지난 2014년 1학기에 아끼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초급독일어 학회를 진행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과 후배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더욱 긴장되고 흥미로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독일어의 ‘독’ 자도 모르고 대학교에 입학해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초급독일어 학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도 새내기 시절에 학회에 참여했었다. (당시에는 독일어교육과 자체 내 독일어학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1, 2학년 때 모두 튜터로 학회에 참가했고 튜터 선배들로부터 독일어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생활에 관해 조언을 들었다. 당시 나는 튜터 선배들을 보며 부러워했고 난 언제쯤 선배들과 비슷한 독일어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바로 지난 학기에 나 역시도 후배들 앞에 튜터로 설 수 있었다. 나는 완벽한 독일어 구사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막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배들보다 몇 발자국 앞선 독일어 학습자로서 내가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는 말이 있다. 나 역시도 후배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독일어를 공부해야 했다는 나의 독일어 공부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는 모든 단어마다 3가지의 성(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후배들에게 정확한 독일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평소에 대충 외웠던 단어들의 성을 더 철저히 암기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이해했던 독일어 문법들을 후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내가 독일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독일어 학습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려고 시도했다. 이미 튜티들 모두 외국어(영어)를 학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어 자신만의 특정한 학습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영어와는 다르고, 영어보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언어가 독일어였기 때문에 내가 지난 3년간 독일어를 공부해 온 방법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독일어 단어는 영어 단어와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므로 독일어 단어를 공부할 때 영어 단어로부터 유추를 해보는 것이라든가(영:Water/독:Wasser), 위에서 말했듯 독일어 단어의 3가지 성별이 있는데 이를 외울 때는 단어의 이미지와 성의 이미지(여성명사 가방-die Tasche-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를 연관시켜 외우는 것 등을 가르쳐주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체득한 나름의 학습전략을 가르쳐줌으로써 후배들이 조금이나마 독일어 공부를 재밌게 하도록 노력했다.

만약 나 혼자 독일어를 공부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독일어 학습 활동들을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 활동은 항상 철저한 학습 활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님을, 스스로 더 발전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4학년이 되면서 학과 활동에 참여가 줄고 후배들과 접촉할 기회도 없어져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떨어졌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중전공 수업에 더욱 집중하게 돼 자연히 1전공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줄었다. 하지만 지난 학기 14학번, 2014년 대학생활의 주인공인 새내기 후배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후배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새내기들만이 가지는 상큼 발랄함이 나에게 활력으로 다가왔다. 내가 1,2학년 때 튜티로 초급독일어학회에 참가했을 때 바라봤던 3,4학년 튜터 선배님들은 나에게 엄청 나이가 많고 대단한 사람들로 보였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튜터 자리에서 서 보니 나의 그런 시선이 당시 선배들께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지금 후배들 또한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니 약간 걱정이 됐다. 그래서 후배들이 최대한 나를 어렵게 느끼지 않게끔 농담도 하는 등 세대차가 나지 않는 편한 선배 이미지를 만들려고 나름 노력했다. 덕

분에 후배들과 한 학기 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이 여섯 명의 후배들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내 화요일 오후 6시에 교실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독일어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튜터링 프로그램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할 당시에 독일어 과외도 하고 있었는데, 독일어 과외보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더욱 더 신경이 쓰였고 실제로 준비도 더 많이 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는 것, 나로부터 독일어 실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책임감을 느낄 만한 과제나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책임감에 대해 느껴 보고 숙고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 학습자의 입장에 있다가 교수자의 입장에 서 보니 누가 정말 성실히 학습에 임하고, 얼마나 학습에 의욕이 있는지 눈에 보였다. 즉,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구나 또는 어떤 태도의 학생을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님의 마음을 간접적이거나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다.

한 학기동안 후배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참 많다. 후배들을 보며 나의 새내기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열심히 독일어를 공부하는 후배들로부터 나 역시도 독일어 공부에 자극을 받았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내가 같은 독일어교육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서는 가슴이 벅찬 경험이었다. 또한 그 후배들이 몇 년 후에 나와 같이 튜터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튜터였던 나를 한 번쯤 떠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았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튜터인 나에게나 튜티들에게 독일어 공부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값진 시간이었고, 특히 튜터였던 나에게서는 책임감을 느껴 볼 수 있는 보람찬 기회였다.

앞으로도 꾸준히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선후배 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한동균 튜터

—중국어대학 중국지역학과 10학번

현대중국경제론 (2014학년도 1학기)

문제는 자기주도 학습이야!

지난 1학기에 중국지역학을 전공하는 동기, 후배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튜터로 맡은 과목은 중국지역학과에서 좋은 학점을 따기 어렵기로 소문난 ‘현대중국경제론’이었습니다.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낯선 개념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수강하던 당시에도 혼자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진땀 꽤나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강의 내용을 토론하고 함께 이해를 해나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중국경제론을 멘토링 과목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과목을 다시 복습하고, 동시에 새로 수강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정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의 전반부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후반부에는 교수님이 내주시는 퀴즈를 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총 10차례의 멘토링 중에서 6회까지는 이러한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 주고 퀴즈에 대한 답까지 만들어서 주다 보니 멘티들이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습 내용을 읽어오지 않는 것 같았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자 전반부에 학습 내용을 정리해 주던 시간을 완전히

빼고, 교수님이 내 주시는 퀴즈에 대한 답을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습내용은 각자 수업에서 배우니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퀴즈 역시 멘토인 제가 예시 답안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을 하던 방식에서, 예시 답안을 제공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학습 방식을 바꾸고 나니, 멘토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멘토-멘티 간 쌍방향적으로 토론을 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4명의 멘티 중 모든 멘티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멘티들 역시 수동적으로 답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뤄지고 강의 식의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쌍방향 학습방법 외에도, 멘티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국경제론은 1949년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해 왔고, 그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국의 대외무역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등 정말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내용만으로 해당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항상 수업 외에 스스로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해야만 수업내용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략 7, 8권의 책을 읽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퀴즈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멘티 학생들에게도 자기주도적으로 책을 찾아보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책 일부를 복사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인터넷이 아닌 책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보다 월등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책을 읽으라 하면 당황할 것 같아 추천도서 5권 정도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멘티가 책을 찾아보며 공부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어떤 친구는 책을 빌려가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직접 영어 논문을 찾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멘티들이 해당 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심화된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스스로 학습전략을 세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공부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수업 내용도 많은데, 굳이 책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학습 동기가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멘티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이뤄질 때 비로소 따분한 강의 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식 학습이 이뤄질 수 있고, 멘토가 중심만 잘 잡아 준다면 멘티들 역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토론식 학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이 길러지고, 심화학습, 학습에 대한 자신감, 협동심, 적극적인 학습 태도 등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능력이 길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유석 튜터

—자연과학대 생명공학과 11학번

일반 생물학 및 실험(2) (2014학년도 2학기)

‘피자 팀워크’로 맛있는 공부

1학기 때 선배에게 분자생물학 튜터링을 받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물학을 배울 때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의 내용을 준비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각기 다른 실력의 멘티들을 어떤 기준에 맞춰 설명해 나가느냐가 매 순간 문제였습니다. 또한 일주일 두 시간이란 짧은 시간 안에 한 단원을 완벽히 끝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을 때와는 책이 비슷하지만 다른 책으로 바뀌었고 시험 범위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기초 과정으로 바뀌어서 하등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는 영어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체 조직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인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미생물의 매커니즘을 주로 배우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영어 용어는 기본이고 동영상 같이 매커니즘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순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를 짜서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서술이 되어 있는 원서는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집중을 흐트리기 때문에 피피티에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로 풀어 나갔습니다.

일반 생물학은 앞으로 신입생이 남은 3년 동안 배울 과목들의 초석입니다. 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남은 과목들을 이해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용어에 있어서 다들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 것이란 전제 하에 설명하는데, 이 기초가 없으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과목의 지식 습득이 아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배울 내용의 맛보기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단원에 pluripotent와 totipotent가 나오면 이 용어를 왜 따로 쓰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간의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선 원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어색함을 깨고 정보공유도 하였습니다. 매주마다 피자과 치킨 같은 인스턴트들은 우리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개인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는 완전한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거나 자신이 다시 가르치는 방법은 튜티들에게 학습내용을 각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1인당 한 단원씩 발표 단원을 정해서 각자 정리하여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친구들 앞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공부해 온 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PT 연습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맡은 단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튜티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설명한 내용을 발표 후에 교정해 주어 튜티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교재 각 단원 끝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내준 문제들 중 틀린 것을 설명하고 오답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최고의 교재는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재가 좋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특정 부분만 이해를 한다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을 이해한 학습자들끼리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서로 교환을 하다 보면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느껴졌던 어려움이 더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점수를 받아본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만족감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어 기말고사를 볼 때도 좋

은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튜터링 팀 중 성적이 우수하면 받게 되는 상금을 각자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현실적인 목표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과 과 행사 기간에는 튜터링에 참여할 시간이 맞지 않아 과제를 부득이 하게 많이 내주었지만 모두들 문제를 다 풀어오는 등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10주,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세 지나갔습니다.

튜터링이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 튜터링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게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를 잡아 함께하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 수업을 들을 멘티들을 학기 초반 일주일 만에 찾아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과 활동을 하여 미리 알고 있는 튜티로 튜터링 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 튜티를 구할 수 있다면 더 다양하고 손쉽게 튜터링 팀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들었을 때와는 배우는 내용이 약간 달라져서 시간 날 때 그 수업에 직접 참관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튜티들에게 더 와 닿는 내용을 전달 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곽기론 튜터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2014학년도 2학기)

학습 동기를 찾는다면 도전하라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저는 학과활동을 자주하면서 학점 관리에는 다소 소홀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복학을 하였습니다. 1학기에 평소보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학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을 알아보던 도중 저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학습에 대한 열의에 찼던 동기들과 후배들은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개강을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튜터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튜터링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2013년 2학기에 동기인 김중헌 학생을 통해 교내 튜터링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이 빨랐던 중헌이는 튜터링 수업으로 회로해석 및 실험 과목을 하면서 튜터들을 모집했습니다. 당시 개강을 앞두고 이번 학기는 좋은 성적을 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튜터링 수업을 하면 수업 외에도 열의를 가진 학생들과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참여하였습니다.

‘회로해석 및 실험’이라는 과목에서는 전기회로의 소자와 회로망에 대한 해석을 상반기에서 공부하고, 하반기에는 교류회로에서의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익힘과 동시에

실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체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공학과는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합쳐진 커리큘럼으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두 부분을 두루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 양쪽을 모두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로해석, 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은 정규 교과목의 수업으로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경험상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인 동기 및 후배들이 모여서 튜터가 우수한 학점을 받은 과목인 회로해석 및 실험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수업만으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풀면서 느꼈던 어려운 부분을 다시 되새기며 요점을 정리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A⁺를 받았던 튜터는 해당 과목 학습 노하우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것보다 심화된 개념을 알려주었습니다. 튜티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모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도와 열의가 일반 강의보다 뜨거웠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덕분에 결국 튜터와 같은 A⁺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튜터링의 장점들은 튜터링 수업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항상 튜터링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전공과목인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과목의 튜터링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 송정수 학생의 튜터링 수업을 신청하면서 학습에 대한 열의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튜터링 수업은 지난번 회로해석 및 실험 과목과는 다르게 매주 한 명씩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며 지난 수업 내용을 되새기는 경험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파워포인트 제작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논문 발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과목의 전공수업 외에 튜터링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네트워킹하고 유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 및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와 인터넷워킹 기술, 프로토콜을 학습하고 내재한 기본 원리를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하는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네트워크의 실체와 응용 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공학적 측면

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이론과 분석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며, 공학도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수업은 튜터의 강의 소개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초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튜터들 5명 모두 1학기 때 선수과목인 데이터통신 및 실험과 운영체제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설명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곧바로 튜터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책 내용의 목차 순서로 진행했는데, 학습 개요를 소개하고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튜터가 공부할 당시의 교수님과는 달라졌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차근차근 잘해 주었습니다. 듣직한 튜터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개념이 생기면 곧바로 질문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악몽 같던 중간고사를 마친 뒤 상큼한 마음으로 튜터링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셔서 그에 맞춰 혼잡제어(Congestion Control) 개념 및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혼잡 현상이 발생하면 트래픽이 발생하고 도미노 현상으로 네트워크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과 네트워크 계층 설명,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개념 및 기능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도중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간고사 결과, 당당하게 1등에 ‘곽기륜’이라는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튜터링 수업을 두 번째 들었던 저에게 아주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부여가 돼 더욱더 전공과목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저는 A+학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였고, 튜터링 수업은 저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튜터링 수업은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동기부여를 하게 해 줍니다. 만약 다른 학생들이 튜터링 수업을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단연코 추천을 할 것입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튜터로서 배운 이 개념과 노하우들을 튜터로서 다시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계속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질수록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튜터로서 수업을 진행하여 정보통신 공학과의 인맥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학도를 배출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동기 중에 4학년인 정수가 튜터링을 얘기하며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 시간 낭비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해 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고 1년 더 배운 학년 선배로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며 요점을 집어 주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튜터링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학점으로 보답하여 우수 튜터링 팀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학점을 잘 안 주시기로 유명하지만 다 함께 좋은 학점을 받고자 이렇게 튜터링을 시작했으니 모두 이루고자 한 목표를 꼭 달성할 것입니다.



김우진 튜터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13학번

재무회계(1) (2014학년도 2학기)

튜터링이 가져다 준 세 기쁨

남들보다 조금 늦게, 2학년이 되어서야 듣기 시작한 경영학과 수업은 낯설고 어려웠다. 특히 회계 과목은 생소한 용어가 많아 더 이해하기 어려운데 1학기에 수강한 회계원리만으로는 재무회계 수업을 듣기에 벅찰 것 같았다. 그래서 튜터링을 시작하게 되었고 2학기 막바지에 이르러 기말고사만을 앞둔 지금, 튜터링은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튜터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얻었는데 성적, 회계에 대한 관심, 사람이다. 먼저 튜터링의 가장 큰 목적인 과목에 대한 이해향상과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재무회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전 단계 과목인 회계원리보다 늘어난 회계 용어들, 포괄적인 범위,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예습을 하고, 관련 책들을 봐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이때 튜터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교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질문하고 매주 문제를 풀어가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할 듯했던 것들이 풀려나갔다.

특히 회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시장구조에 적용하기가 난해했는데 튜터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제 이자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 이는 얼핏 보기엔 이상해 보이지만 시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높다면 사람들은 해당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를 끌어들여

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줘야 하고 이 때문에 실제이자율은 액면이자율보다 높게 형성된다. 또한 기타포괄손익 계정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 계산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전체적인 회계구조를 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기타포괄손익 계정은 손익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설정하는 임시계정이다. 따라서 마지막 정산 때에는 재분류 등을 통해 알맞은 계정으로 옮겨야 한다.

이처럼 회계과목은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알면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튜터님에게 설명을 들으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갔음에도, 숙련공, CEO의 능력, 고객의 충성도가 과연 무형자산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가 헷갈렸다.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앞서 나열한 3가지가 어쨌든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별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무형자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답이었다. 튜터님은 이를 기초적인 원리에 근거해 설명해 주셨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보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통제가능하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숙련공, CEO의 능력, 고객의 충성도는 식별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은 있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학교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외웠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기초적인 정의에 바탕을 두고 그 원리를 알고 나니 한층 이해하기 수월했다. 이렇게 몇 주간 튜터링에 성실하게 참여한 덕분에 차츰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중간고사 A⁺를 받을 수 있었다. 기말도 철저히 준비해 최종성적까지 잘 나왔으면 한다.

다음으로 튜터링을 통해 얻은 것은 회계에 대한 관심이다. 지난 1학기 경영학과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숫자와의 싸움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수학을 멀리해왔던 나에게 통계나 재무, 회계는 집중하기 어려운 과목이었다. 그럴수록 더 공부하고 교수님에게 질문해야 했지만 흥미 없는 과목에 대해 그렇게 하기란 괴로운 일이었다. 결국 재무, 회계는 내 분야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아예 마케팅이나 유통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튜터링을 통해 회계에 대한 적성이나 자질이 없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튜터님, 다른 튜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회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모르던 부분이 해결될 때마다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꼈다. 예전처럼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공서적을 찾아보고 안 풀리는 문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학기 초반에는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었던 학교수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경영학도가 숫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좁아진다. 아직도 재무 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튜터링을 통해 회계에 관심이 생기고 나아가 숫자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 이것만으로도 튜터링에서 큰 것을 얻어간 셈이다.

마지막은 경영학과와 좋은 선배들을 만난 것이다. 경영학과로 전과하면서 과 내에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다. 수업 조모임에서 만나는 선배들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연락이 오래 닿지 못했다. 각자의 갈 길이 바쁜 대학에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튜터링을 통해 만난 과 선배들이 반갑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내게 선배들의 이야기는 큰 조언이 되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선배들에게 금융권취업이나 대외활동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전혀 고려해 보지 못한 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회계에 대한 배움 외에도 이처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서 비슷한 과정을 지나고 있고 같은 고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참여한 튜터링 프로그램은 이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겼고 낯설기만 했던 경영학에서 처음으로 재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다음에도 튜티로 참여할지 아니면 튜터에 도전할지는 모르겠으나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튜티로, 튜티로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해서 나처럼 소중한 경험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지미 튜터

_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10학번

재무관리 (2014학년도 2학기)

공짜로 배운 과외

2014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내심 복학하는 기분에 들떠 한 학기를 अच्छ고 보람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대학생이라면 길고 긴 방학이 끝나고 매번 드는 생각일 테지만 이번 학기는 뭔가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다. 무려 1년이라는 교환학생 과정을 끝내고 오랜만에 오는 학교에서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란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한 이중전공과목을 수강한다는 것에 걱정이 컸다. 그래서 괜히 지레 겁을 먹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 튜터링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스터디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때마침 재무관리과목에 대한 튜터링에서 튜터를 모집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고 바로 지원했다. 사실 재무관리는 경제학을 이중전공하는 나로서는 뭔가 생소한 과목이 아닐 수 없었다. 경제학 5과목을 듣기에는 뭔가 겁이 나고 이왕이면 경영대와 교류되는 교류과목을 들으면서 경제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새로운 학과의 수업도 수강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재무관리를 수강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신청하고 나니 재무관리가 경영학 과목 중에서도 어려운 과목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갑자기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이 컸지만 튜터링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 일단 시작은 순조로운 듯했다.

재무관리 수업 첫날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괜스레 어려울 것이라는 마음이 커져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수업 후 첫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 학기 동안 수강과목에 대한 도움을 주실 튜터분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게 될 튜터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걱정은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튜터님이 기존에 공인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이었고 덕분에 재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으셨다. 게다가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재무관리 과목에서의 교수님도 기존에 튜터님이 수강했던 교수님과 동일한 분이셔서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수업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이것저것 여쭙볼 수 있었다.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경영학과목들을 듣지 않았던 내게는 많은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려울 따름이었다. 그래서인지 수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뎠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터님이 마치 과외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념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문제도 준비해 오셔서 배운 부분에 대해 복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수업 후에 바로 복습을 하게 되는 것이라 혼자 공부했으면 오래 걸렸을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충분한 시간 동안 튜터링이 이루어져서 복습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나갈 부분에 대해 미리 배우면서 예습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수업 후에 공부해야 할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시간이 두 배로 절약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은 필수이지 않았나 싶다. 자칫하면 나태한 마음에 빠질 수 있었겠지만 항상 철저하게 수업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오시는 튜터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은 조용히 덮어둘 수 있었고 튜터링 프로그램에 빠진다면 그만큼 나에게 있어 공부 시간의 효율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불참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꼬박꼬박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던 것 같다. 게다가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튜터님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연락을 취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시

간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이번 튜터링 프로그램은 나에게 있어 이번 학기 동안 많은 것을 주었다. 수업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함께 공부하다 보니 의지도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게다가 같이 수업을 듣는 튜터들과 발표팀을 만들어서 함께 발표 준비도 하고 결국엔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튜터로서 혹은 튜티로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



나재민 튜티

_동양어대학 아랍어과 10학번

재무관리 (2014학년도 2학기)

결핍을 겪은 후 안 ‘소중함’

“결핍이 있어 본 사람은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한 아픔과 안타까움과 절망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 이 행복이 얼마가지 않을 불안한 것임을 알기에 그 순간이 그지없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 성석제 <단 한 번의 연애>

좋아하는 작가가 오랜만에 낸 연애소설의 한 구절을 늦여름 시험장에서 실감하고 있었다.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이 범위의 전부라는 경제학 시험에서 “주어진 무이힘이자율과 시장이자율, 베타를 이용해 자산의 기대가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혹감에 멍칫할 틈도 없이 바로 모른다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험을 같이 준비한 다른 스터디원이 “왜 재무관리 범위까지 나왔대? 나야 그 수업 들었지만 경제학 시험인데 범위 너무하다”라고 불평을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시험 시간에서 풀지 못한 문제는 결핍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중전공인 경제학 과목들로만 시간표를 채워도 되지만 굳이 재무관리를 막 학기의 시간표에 옥여넣은 것은 그 시험에서 느낀 절망감 때문이었다. 출제범위 판단ミス라고 하고 지나가기엔 내년에 또다시 당혹감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치기가 생겼다. 하지만 높은 학점이 필요 없는 쪽으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도 없었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재무관리 튜터 구합니다”라는 글에 쪽지를 보낸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전공인 어학과목이나 이중전공인 경제학만 듣다가 오랜만에 들은 재무관리는 역시나 생소했다. 교수님은 2년 전 들었던 회계원리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다 알 거라고 간주하시며 원어로 신나게 진도를 나가셨다. 첫 수업에서 operating cash flow, cash flow from asset등을 OCF, CFFA 등으로 줄여 부르기 시작할 때 이미 재무관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제3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열심히 하면 학점은 잘 나온다”며 해당 교수님을 추천해 준 후배가 원망스러웠다. 막학기에 재무관리라니, 학번이 한참 어린 후배들 사이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니고도 원론 수준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자괴감이 들었다.

이중전공을 위해 개설되는 재무관리 수업은 두 반이 있는데 둘 다 다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잡혀 있어서 튜터링은 수업이 끝난 바로 그날 6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튜터는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지만 이미 재무관리를 비롯한 여러 경영 과목을 들어서인지 선배 포스가 풍겼다. 항상 따로 필기를 준비해 오셔서 튜티들 하나하나 표정을 살피가며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셨는데, 교수님한테 듣는 수업과는 달리 적은 인원이라 자유롭게 질문하며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재무관리는 난해하긴 했지만 매력적인 과목이었다. 1전공인 어학과목이나 Ceteris Paribus라는 말로 포장해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 래프를 그리는 이중전공만 하다 실제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재무적 요소를 배우니 CFO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은 be동사를 가르쳐주고 예문이라며 비틀즈의 “Let it be”를 해석해 오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수업시간에 다뤄지는 이론적인 이해들로만 실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 “이자비용이 절세효과가 있다”는 교수님의 당연한 전제도 그 때그때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해하지 못하는 전제로 도출한 그날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눈에만 익었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튜터링에 참석했다. 다른 튜티들도 사정이 비슷한지 다들 비슷한 울상을 짓고 튜터링을 듣고 있으면 튜터는 친절하게 지난주 튜터링의 내용들까지 짚어가며 전제가 도출된 과정이나 교수님이

복잡하다고 생략하신 공식 전개를 타임라인까지 그려가며 설명해 줬다. 그냥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였지, 저건 뭐였지”하며 지난 튜터링 내용이나 수업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떠들떠들 대답해 가며 듣는 재미도 있었다.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듣기 편하기만 한 튜터링은 아니었다. 매주 튜터링 전에 미리 문제를 보내주시고는 그날 튜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튜터링 시간 동안 문제를 혼자 풀어보게 했다. 그날 배운 내용이라도 바로 문제로 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고민한 후에 답을 도출하면서 좀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교수님에게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수업한 뒤 바로 튜터링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고 문제에 적용해 가며 이해를 높였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나 다음 수업시간에 시너지효과로 자신감이 생겼다.

모든 튜터들에게 재무관리 수업이나 튜터링이 큰 효과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점을 채우기 위해 시간표에 넣은 한 과목은 별다른 지적 자극 없이 일상이 되고 머릿속에 크게 남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여름 시험장에서 재무관리 문제를 풀지 못해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튜터링에 참여하게 된 나로서는 수업과 튜터링 모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재무관리라는 과목에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긴 것 같다.

결핍을 겪은 사람은 소중함을 알게 된다. 재무관리 튜터링을 통해 부족한 지식의 일부를 채울 수 있게 되어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신 튜터와 계기를 마련해 준 학교에 감사한다.



박성준 튜터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2014학년도 2학기)

편견을 깨준 친구야, 고맙다

대학생활 중 제일 중요한 3학년.

이때 뭐든 기반을 잡아놓지 않으면 졸업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학점 관리를 못해 온 것들도 이번 기회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여 좋은 학점을 받고 더 심화하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생각 중에 같은 학번 친구인 정수가 튜터링을 한다고 하길래 처음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질문을 한 제가 창피하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튜터링이 제 대학생활 중 제일 잘 선택한 일이 되었습니다.

역시 먼저 A^+ 를 받았던 튜터답게 해당 과목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석만 하지말자’라는 생각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쉬운 거 같 으면서도 어려운 실천. 저는 그 작은 실천이 이런 큰 시너지효과를 나타낸 거 같습니다. 튜터의 지휘 아래 튜티들이 서로서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몇 배 더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결과로 보답할 때 더 없는 값진 경험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고 다른 튜티들도 같은 생각으로 하나되어 배웠습니다.

제게 이 튜터링은 단지 튜터링 자체뿐만 아니라, 연습과 복습, 전반적인 수

업 참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바로 복습을 하였고 그 방법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바로 잊혀지는게 아닌, 머리에 강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시험 대비를 해서 주말까지도 보충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협동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SNS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재검토를 하고 몰랐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튜터링에 빠지게 되는 친구들은 별금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참여하며 배워가는 자리로 돈음하게 된 거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시험기간이 아닌 날들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으며 공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튜터링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공부를 하게 되어, 전공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저도 나중에 좋은 튜터가 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시간이 아니면 혼자 끙끙대며 머리 싸매고 터득해 나가야 하는 많은 시간들이 점차 줄고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려던 것들도 나름 연구해 가며 튜티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과정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우리 팀 내에서 1등도 나오고 모든 팀원들에게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튜티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침착해 주며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해 주는 튜터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마음가짐이 생기게 된 거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대비한 필기노트를 직접 복사하여 나누어 주고 암기해야할 것들을 짚어주던 튜터가 아니었으면 흥미 없던 과목에 흥미를 붙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정성이 묻어나는 자료들과 함께 진행되는 수업 덕분에 튜터링을 받지 않는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능동적이지 않으면 얻어가는 것이 없던 지난 학기들.

누군가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준다는 점이 너무 고맙고 한 발짝 더 앞서가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튜터링은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남은 대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은 모두를

어우르는 카리스마. 그런 아우라를 뽐어내는 사람이 우리 튜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혼자서 이끌어가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모습에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튜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몰라서 괜한 시간 낭비일까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때 튜터링을 권해 준 친구가 너무 고맙고 이번 학기 동안 가장 뿌듯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튜터로 인해 더욱 풍부한 지식을 쌓게 되었고 자신감이 한층 업되었습니다. 저도 튜터가 아니라 튜터의 자리에서 예전 내 모습처럼 힘들어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바라는 학우들과 뜨거운 열정을 나누고 튜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학교생활에 있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싶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경험하여 더없이 멋진 학교생활을 이뤄 나가길 바랍니다.



서장일 튜터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2014학년도 2학기)

배움, 그 이상을 얻다

저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시간을 정해 놓고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한다는 것이 항상 어렵고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 매번 실패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튜터링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튜터링에 참가했습니다. 튜터링을 하기 전 생각은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도하고 선배 조언도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튜터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의 과목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수업과 어려워진 내용 때문에 수업시간에 놓치는 부분도 많았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전공지식에 대하여 교수님이 아니면 질문할 곳도 없었으며 술을 안 좋아해서 선배들과의 친목도 없던 저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튜터링을 하는 동안 각자 어려운 부분을 예기하며 토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닐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혹시 이 부분 이해된 사람 있어?” 등 자신의 생각들과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 매주 튜터링을 가졌습니다. 또한 튜터의 존재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

록 동기지만 학년이 높아 튜터로 우리를 지도해준 송정수 학우는 차근차근 전에 배운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동안 생각해 온 노하우 역시 전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나도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다시 해 줄게” “혹시나 모르는 부분 있음 다시 물어봐” 등 자신이 겪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총 10주차의 튜터링이 있었고 튜터링 동안 매번 빠지지 않고 참가했습니다. 심지어 중간고사 기간에는 중간고사 1, 2, 3등을 같이 튜터링을 하는 학우인 박기훈 김정현 그리고 제가 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튜터 학우 역시 모두 60명의 강의 중 10위 안에 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원서를 읽었는데 원서의 내용은 딱딱하기도 하였고 말들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서를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여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튜터링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 명이 토론을 하고 튜터가 학생 입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니 평소보다 기억에 오래 남고 공부를 한 뒤에도 기억이 더 잘났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서 그런지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내용이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장점을 말하자면 매주 모인다는 것입니다. 기존 학기에 공부를 할 때면 매주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모두 집에 가기 바빴고 집에 가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에 피곤도 하고 귀찮기도 하여 매번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이 닥치면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여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고 또한 점수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매번 시험 전날에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멍한 기분으로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만나 그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다시 한 번 튜터에게 수업을 들으니 시험기간이 다가와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험 주에 튜터가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주며 복습을 시켜 주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간고사 1, 2, 3등을 같이 튜터링을 하는 친구들이 모

두 싹쓸이하였고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해도 그 강의에 임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좋은 강의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튜터링을 하면서도 매번 시험 범위가 많다고 찡찡했던 버릇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매우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니 교수님의 다음 수업 역시 이해가 잘되고 빨랐으며 수업에 대한 자세 역시 바뀐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험 때는 시험범위가 많은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복습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번 기회로 복습이 왜 중요하고 왜 꼭 필요한지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전공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줄기 일쑤였지만 튜터링을 통해 이전 내용을 완벽하게 습득하여 수업에 들어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전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빨라 수업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오면서 연락이 끊겼던 동기들에 대해 튜터를 통하여 연락도 많이 하게 되고 예전만큼 친해져 대인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매번 학교에서 지나치게 되면 오래 못 봐 서로 우물쭈물하다가 지나치기 일쑤였지만 튜터를 통하여 여러 동기들과 다시 만나고 대화를 통하여 친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동기 친구들이 교수님 수업에서 어떤 점을 중요시 들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정보를 주었고 이러한 점은 학교생활을 더 활력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이번 튜터링 기회를 통하여 다음 학기에는 저의 능력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기존 튜터들이 한 것과 같이 많은 도움을 주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선배들과 교류가 많지도 않았으며 후배들과는 안면조차 트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튜터링 기회를 통하여 이상적인 선후배 사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튜터링은 단순히 튜터가 튜티에게 학업

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맺은 인연을 튜터링이 끝나도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가며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음 학기 때는 후배들에게 이번 튜터링으로 습득한 노하우나 제가 느낀 많은 점들을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튜터링을 제공해준 학교 측에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추억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고생하고 우리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값진 노하우와 지식 그리고 튜터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준 송정수 튜터에게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번 튜터링을 한 동기들끼리 모여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하며 밥 한 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은지 튜터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13학번

재무관리 (2014학년도 1학기)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

지난 학기, 처음으로 재무관리 수업을 들었을 때 막막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원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재무 관련 용어들을 영어로 수업을 하니 저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고, 수강신청 취소 기간에 취소를 해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재무관리 수업을 듣는 동기들이 재무관리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튜터링 프로그램의 수업을 듣고 나서, 재무관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던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선 튜터 선배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 주셨고, 주된 수업방식은 문제 위주로 풀어 주는 방법이었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풀려고 했다면, 며칠이 걸려서 풀었을 것 같은 문제들을 2시간 안에 쉽게 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튜터 선배님이 정말 멋져 보였고,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겨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튜터링 수업 때,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 이외에도 재무관리 공부방법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수업이 끝날

쫓에, 다음 시간에 수업할 부분을 미리 읽어오라고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튜터 선배님은 교수님이 내주신 reading 과제와 튜터링 시간에 하는 문제풀이도 같이 예습해서 준비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면 충분히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말을 듣고 저는 항상 예습을 하려고 했고, 수업시간에도 수업내용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했고, 물어보지 못했다면 튜터링 시간에 질문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재무관리 과목을 점점 잘 이해하게 되고, 문제도 잘 풀게 되면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재무관리에 자신감도 생겼고, 잘하고 싶은 의욕도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튜터 선배님께서 예상문제도 직접 뽑아 주시고 풀이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튜터 선배님의 노력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덕분에 수월하게 공부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참고하라고 내주신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풀어 보다 가도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 초반에는 모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작정 튜터 선배님께 질문을 했을 텐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제가 먼저 풀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풀 것 같이 보였던 문제들도 풀게 되었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니 자신감도 생겨 어느새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까지 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설명까지 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이 느껴져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무관리 학습능력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영학과가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선배들은 물론 같은 학번 동기들도 다 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튜터링 수업을 듣는 동기들도 반 정도는 아는 동기들이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동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튜터 선배님이 같은 과 11학번 선배님이셨음에도 처음 보는 분이였기 때문에 어색해서 수업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알게 된 동기들은 굉장히 웃기고 유쾌했고, 튜터 선배님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고, 튜터링이 끝난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며 좋

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생살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새로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재물관리 수업은 학기말에 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동기들과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었는데, 투자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물관리를 한 학기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직접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도움을 청하자 튜터 선배님께서 수업을 들었을 때 하셨던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보여 주시면서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튜터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들은 서로 협력하여 팀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를 썼지만, 저는 이것들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한 번도 결석 없이 참여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덕분에 좋은 학점도 얻을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후회없고,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과목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 제 주위에 동기들과 후배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튜터링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싶은 만큼 얻는 것이 많은 기회였습니다.



이가원 튜터

—동양어대학 이란어과 14학번

이란학 입문 (2014학년도 2학기)

너무도 기다려졌던 그 수업

우리 튜터링 팀은 튜터 선배 1분과 튜티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튜터링 교과목은 이란학 입문으로 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학 입문 과목만을 공부하지는 않았다. 초급 페르시아 강독, 초급 페르시아 언어실습 교재도 같이 봐 주셨다. 주로 이란학 입문을 공부하기는 했으나 튜터 선배가 가끔 걸다리로 알려주시는 이란어 단어들을 정리하기도 했고, 초급 페르시아 강독 교재와 초급 페르시아 언어실습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뽑아서 정리를 해주셨다. 그리고 2-3시간에 1번 정도는 단어 시험을 봤다. 단어 시험은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튜터 선배가 선정한 것들에서 나왔다.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는 긴장을 늦추고 있어서 공부를 잘 안했는데,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보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튜티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겨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튜터 선배가 단어를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주실 때에도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평생 안 잊어버릴 만큼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었다.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서 튜터 선배에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튜터링 시간 외에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했고 모든 튜티들이 다같이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 아무래도 원어민 교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하시니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튜터 선배는 원어면 교수님께 이란어로 설명을 들어도 우리에게 한국어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튜터링을 하는 과목 외에도 다른 전공과목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튜터 선배에게 부담 없이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저번 학기에는 전공과목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동기들끼리 해결하거나 선배들께 어렵게 어렵게 물어봐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튜터 선배를 통해서 의문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튜터 선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아야만 튜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튜터링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한번은 튜터링 시간에 튜터 선배가 잘 나오는 단어라고 알려주신 단어가 다음 날 전공시간에 나왔는데 교수님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나서 대답했더니 교수님이 칭찬을 해 주셔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전공시간에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뻘뻘하게 나가셨다면, 튜터링 시간에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다. 튜터 선배가 작년에 들었던 수업이고 좋은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막혔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우리 튜터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을 튜터 선배도 역시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또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덕분에 같이 공부하는 튜터들이 중간고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

1주일에 2시간 10번해서 총 20시간을 공부했는데,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1주일에 2시간은 적은 것 같지만 2시간이 10주째 쌓이다 보니 크게 느껴졌다. 튜터링이 막바지로 다다랐을 때, 튜터 선배와 튜터들과 많이 친해졌다. 우리 팀은 튜터링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튜터링 수업을 끝마친 후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쉬곤 했는데 그 시간에 모두랑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생각보다 선배들과 동기들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튜터링 덕분에 선배와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전공 수업 관련 내용 외에도 학과 관련 일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 팀의 튜터 선배가 학과장실 조교를 겸임하고 있어

서 장학금 규정이라든가 교환학생, 7+1등의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말 잘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의 성향도 잘 말씀해 주셔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다.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수업교재를 더 보게 되니 시험 기간에 훨씬 머리에 잘 들어와서 저번 학기보다 수월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의 튜터 선배는 매주 수업준비를 정말 잘해 오셨는데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기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했다.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튜터링으로 학생들의 공부를 증진시키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다. 게다가 장학금도 지급해서 만나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튜터링 시간이 기다려졌다.

다음 학기에 기회가 된다면 튜터링을 또 하고 싶다. 튜터의 입장에서든 좋았지만 튜터의 입장에서 튜터링을 해 보고 싶다. 초반에 5명의 시간표를 맞추기 힘들었기도 했고, 조교일도 같이 하느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튜터링을 부탁했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신 튜터 선배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병헌 튜티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10학번

미시경제학 (2014학년도 1학기)

경제학 재미에 한 발 더 앞으로

이번에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튜터를 만난 덕분에 튜터링 시간 내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과목별로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번 튜터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경제학을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제학이라 하면 어렵고, 재미없는 전공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시경제학 튜터링을 통해서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생활에 실제 접목된 부분 그리고, 문제풀이 과제 및 해설을 통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우들과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간을 정해서 튜터링 모임을 갖다보니 의무적으로라도 예습 복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작용하여 수업시간에도 자신감 있게 수업에 임하고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팀들과 과목성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들어서 더욱 열심히 튜터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과목보다 미시경제학에 더 많은 시간을 쏟

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목에 대한 이해가 향후 다른 과목들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데, 미시경제학이라는 기본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넘어갈 수 있어서 앞으로의 학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튜터가 학습방법에 있어서 문제풀이를 할 때, 화이트 보드에 문제를 풀고 다른 튜터들에게 한번 강의를 하라고 했던 것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 중에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튜터, 튜티 모두 학생인지라 시험기간에 시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또한 시험기간에는 지식의 전달을 통한 학습보다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습문제뿐만 아니라 튜터가 개인적으로 다른 참고서에서 문제를 뽑아서 나눠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튜터에게 가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시험기간 튜터링이 진행되었고, 상당량의 문제를 풀었던 것이 시험지를 받고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튜터링이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튜터링을 통해 만난 학우들과 친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좋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다 보니 거의 대부분 앞으로 수업을 같이 듣거나, 예전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다는 공통점을 가진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튜터링을 통해서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많이 알게 되어 정보도 공유하고 친분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튜터로 튜터링에 참여했지만, 다음번에는 튜터로 튜터링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튜터로서도 배우는 것이 많지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은빛 튜티

_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3학번

한국현대소설교육론 (2014학년도 2학기)

같이 가야 멀리 간다

한국현대소설교육론은 매주마다 교수님이 정해주시는 소설을 한 편 내지 많게는 네 편을 읽고 관련된 논문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토론과 발표를 하며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 튜터링은 튜터인 동기와 튜티 네 명으로 진행했다. 튜터링이었지만 정해진 지식이 있는 언어학개론이나 학교문법교육론과는 달리, 문학수업이었기 때문에 튜티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주마다 소설을 세 편씩 읽는다는 게 귀찮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모두들 꼬박꼬박 소설을 읽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혼자 소설을 읽을 때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감상도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참 유익했다.

어떤 작품이 그 주 주제가 되느냐에 따라 튜터링의 방식은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잘 아는 <광장>이 작품으로 나왔을 때, 튜티도 튜티도 모두 이명준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근거를 드는 토론 형식이 주가 되었다. 자신이 읽은 논문 중 새로운 의견이 있다면 그런 주장까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일단 자신의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개인이 존재하는 논문들을 모두 읽을 수는 없는 데 각자 다른 논문을 읽게 되니 여러 학계의 주장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낯선 작품들, 예를 들어 <요한 시집>이나 <타인의 방>, <은어 낚시 통신> 같은 작품들이 나올 때에는 각자 자신이 이해한 것까지 얘기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튜터인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튜터가 모든 답을 해 주지는 못했다. 교수님께서 작년 작품을 그대로 편성하신 것도 아니었고,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질문을 해결해 주신다기보단 질문을 하시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곤 했다.

또 전쟁이나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봄날>, <깃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새벽출정>, <씻물처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등과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들 <아내의 상자>, <하나코는 없다>, <칼날과 사랑> 등의 작품들이 하나의 사회문제를 주제로 묶일 때에는 세 작품 모두에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작품 속 화자를 통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웠다. 게다가 수업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사회문제에 대해 각자의 시각과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았다.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사회구성원이자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로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를 종강하고서 혼자라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개인적인 나태함을 막는 좋은 자극이 되었다. 분명 혼자서 평가받는 거라면 안하고 말지, 하고 귀찮다고 넘겨버릴 과제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 때문에 책을 읽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과제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분명 이렇게 꾸준히 해내지 못 했을텐데,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튜터링 프로그램이 수업을 미리 예습을 하게 된 셈이라, 수업을 들어갔을 때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다. 튜터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다 보니 모두들 나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려고 해서, 토론 수업의 맹점일 수 있는 학습자들의 적극성 부족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좋은 수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튜터링과 현대소설교육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어 내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면 그 전

에는 그저 글을 읽을 뿐이었다. 그래서 한 작품을 읽고 나면 그 작품의 줄거리, 받았던 느낌들이 모호하게 남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타인과 의견을 공유하고, 의문을 갖고 생각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어떤 수사적 상징들, 구성적 장치들을 조금이나마 알아차리는 눈이 생긴 것 같아 기뻐다. 소설을 읽는 것이 예전에는 즐거웠는데, 고등학교 입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전공서가 아닌 문학을 읽는 것은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문학을 읽고 나니, 어느새 다시 습관이 되었다. (종강을 한 지금은 예전에 필뮤직에 응모했다가 받은 정유정 작가의 <28>을 읽고 있다) 입시에 소원했던 친구와 다시 친해진 것 같아 기쁘다.

무엇보다, 이번 튜터링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관계의 측면이다. 단순히 말해서 좋은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다. 다른 과목으로 튜터링을 했어도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현대소설교육론이라는 과목으로 튜터링을 하면서 사람들과 ‘현대소설’뿐만 아니라 ‘교육론’에 관한 이야기도 하며 가치에 대해 생각을 나누다 보니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다. 토론을 수업으로도 튜터링으로도 한 학기동안 활발히 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지 그러한 방식에 관한 기술들이 어느새 많이 늘었다고 느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많이 다르면 무례하게도 말허리를 자르고 말을 하거나, 주제와 벗어난 말꼬리를 잡고 비꼬는 듯한 말을 많이 해 왔다. 그런데 많이 토론을 겪으면서 더 예의바르고 논지에 맞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웬지 모르게, 모두들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의견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작품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입장에서 잘못되고 어리석게 들리는 말들도 수용하는 것이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유익한 학기였다.



정인철 튜터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2014학년도 2학기)

학업의 열정에 부은 기름

1학년부터 학점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수업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시험기간이 되기 전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모르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면서 전공 지식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학점에서는 만족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공부에 대해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2년 뒤 복학을 바로 했습니다. 1학년 때보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더 불타올랐지만, 군대에 있던 2년 동안 머리가 많이 굳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기 김중현 학생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소 낯선 프로그램이었고 효율이 있을까 내심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김중현 학생이었기 때문에 믿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로해석 및 실험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평소 배우던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물리 과목의 전기, 전자공학적 지식이 필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개강을 하고 교수님의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과목의 난이도가 다소 높아 버겁다는 것을 느꼈

습니다. 하지만 개강 전 미리 신청했던 튜터링 수업을 방과 후에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개념과 예제들을 질문하였습니다. 튜터는 이미 들었던 학생의 입장으로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해 줬고, 덕분에 이해를 하는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학업에 열의를 불태우는 튜터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도는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업의 질적인 측면 또한 더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했던 튜터들 대부분 튜터와 같은 우수한 학점으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튜터링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3학년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은 1, 2학년에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응용된 지식과 심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하면서 더욱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 송정수 학생이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과목의 튜터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공필수 과목인 컴퓨터네트워크 과목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튜터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튜터링은 모두 동기들이 모여서 튜터, 튜티로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서 스터디를 하면서 튜티에게 조언도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며 튜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튜티의 신분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두 번째 진행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여러 장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습 및 복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공과목은 난이도가 쉽지 않고 사교육으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의 흐름을 한 번 놓치거나, 심화된 개념이 나와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를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은 해당 과목을 열심히 배우고자 모인 튜티들, 이 전에 이미 A+라는 우수한 학점을 받았던 튜터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 줍니다. 수업 시간에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개념들은 방과 후 튜터링 수업 때 일방적인 질문보다 토의하는 형식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 혼자 하는 것보다 더 기억에 남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터디 모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모임 일정이 변경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튜터링 프로그램은 동일 학과 사람들이 전공과목으로 진행하기 때

문에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튜터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결시율이 낮았습니다. 저희 팀은 총 10주의 일정으로 진행한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전원 매주 참석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업의 열정에 기름을 붓는 효과와 같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미 전공과목에 대한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뭉친 튜터링 프로그램은 더욱더 전공과목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튜터가 5명이지만 60명이 넘게 듣는 컴퓨터네트워크 및 실험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의 10등 안에 모두 들어오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과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2차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여 A+라는 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은 전공과목에 대해 겉핥기식이 아닌 깊이 있게 학습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1학기에 배웠던 네트워크프로그래밍을 선수하여 컴퓨터네트워크 과목을 듣는데 부담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튜터링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이 높아 튜터의 신분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동기 송정수 학생은 차근차근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알려주고 공부하며 생각했던 노하우 또한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의 구성 원리,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두 번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부분 등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겪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전공과목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심화된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강의 또한 매우 훌륭하고 박학다식한 수업 진행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개념 설명이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생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네트워크 과목을 담당하는 홍진표 교수님은 확고한 신념이 있으셔서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노력한 튜티들은 좋은 학점을 받고자 튜터링을 시작했으니 모두 우수한 학점을 받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동기인 송정수 학생이 튜터링을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는 '3학년에도 튜터링 수업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더 배운 학년 선배인 송정수 학생은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요점을 집어주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참여했던 튜터링 수업을 돌이켜보면 성취감이 있었고 팀원 또한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면 학점이 나올 텐데 튜터와 같이 우수한 학점으로 보답하여 우수 튜터링 팀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제가 튜터의 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여운 튜터

—동양어대학 이란어과 14학번

이란학입문(2) (2014학년도 2학기)

내 삶의 비타민이 된 ‘행운’

저는 사실 입시를 시작할 때부터,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특히 방송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입학사정관제로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실패했고, 재수 끝에 이란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어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 경쟁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입학사정관제로 어디든 가야 했고, 어느 과를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름만 알았지, 거의 잘 몰랐던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학 을 위해 이란에 대해서 면접 전에 급하게 공부했고, 급하게 외웠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한 저에게, 이란어과에서 배워야 하는 이란어와 이란 문화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한 1학기 때, 이란학 입문(1)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이슬람? 알라신? 등등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인물들과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종교에 대해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중동의 역사와 말은 정말 생소하고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흐름을 점점 놓치게 되었고, 1학기 때 이 과목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대충 공부했습니다.

이 이란학입문이라는 과목은, 생소한 이란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정보, 그들의 음식과 주거환경 등 문화, 그리고 이란과는 뗄 수 없는 이슬람교의 기원부터 이슬람교의 역사까지 상세하게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 과 학과장님이었습니다. 이란어과 신입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1학기 때 저는 그렇게 대충 공부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학 때 혼자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결국 이란어과를 선택한 건데, 이란어과에 아직도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게 비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문화를 자세히 이해해야 하는데, 저는 이란의 문화에 대해 단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학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친구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허명현 튜터님께서 저희에게 튜터링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란학입문이라는 과목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교수님께서서는 신입생이 이해하기 조금은 어렵게 설명해 주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동안, 그 주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더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선배에게 배우기로 했습니다. 수업시간 또 한 이란학입문 정규수업이 끝나자마자 만나는 걸로 정해서,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 수업시간에 '이슬람의 기원' '이슬람의 역사' '이맘, 알라, 호메이니' 등 생소한 개념에 대해 배워서 이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그 개념이 왜 생겼는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 개념이 나타난 건지, 이란인들은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와 어울리는 이란어 단어들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문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초를 알게 되고,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깊은 개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각 개념에 맞는 이란어 단어들도 매주 스무 단어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란어 어휘력도 향상되어서 결국 다른 언어 수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많은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제가 감사히 생각하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란어과에 전혀 흥미를 붙이지 못하고, 사실 전과를 하려고 생각해 왔었는데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

가하게 되면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이란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듣고 있던 페르시아어 언어연습에도 흥미가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어과라는, 제가 속한 과에 전혀 흥미가 없고, 사실 동기들이나 선배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왜 이 과에 왔나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튜터링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고, 매주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이제는 제 전공을 좋아하게 되었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과 학우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자, 어쩌면 인생에 큰 도움을 줬던 계기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제 학과와 관련된 쪽으로 생각해 보기로 마음을 다잡았고, 이란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이란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었던 저는 이제, 스스로 찾아서 소설도 읽고 정보서적도 읽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자, 어쩌면 큰 행운이었던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저와 같이 학과 공부에 대해 방황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저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 튜터링 프로그램은 저에게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 준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헌 튜티

_사범대학 영어교육과 09학번

한국현대소설교육론 (2014학년도 2학기)

튜터링,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번 학기에 들은 한국어교육과의 강의인 한국현대소설교육론의 목표는 한국현대소설의 흐름을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소설을 중심으로 작품을 직접 읽고 의미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한국현대소설교육론의 강의 방식은 매주 2~3편의 한국현대소설을 읽고, 각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논문을 검색하여 찾아낸 해석을 비교하는 방식의 과제를 해 오는 것이다. 이 강의는 문학 강의였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수업에 임하게 되면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수업이었다. 이 튜터링의 제안을 받고 나서 여러 튜티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강의를 좀더 쉽고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튜터링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어교육을 이종전공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치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튜터링을 통해 다른 한국어교육과 전공생들과 튜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첫 강의에서 1950년대 문학을 읽어오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에 한국문학을 얼마나 어려워하였는지 새삼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첫 주의 작품들은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과 <비 오는 날>, 그리고 장용학의 <요한 시집>이었다. 특히 <요한 시집>의 경우에는 아직 까지도 기억이 난다. 분명히 그 작품은 내가 고등학교 때에 읽고 학교에서 수업으로 해설을 듣고 난 직후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작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 시집〉은 우화적인 요소를 취하고 있고, 성경의 요소 또한 가져온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읽는다고 해서 내용이 이해되는 소설이 아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의 나는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튜터링에서 튜터는 고등학교 때의 국어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이 소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소설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소설을 읽으며 튜티들에게 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도록 유도하였다. 튜터는 이 수업에서는 그 의견이 맞냐 틀리냐의 중요성보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두 시간 정도 5명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나니,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나만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과제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원했던 것은 튜터가 말했던 바로 그 점이었다. 교수님은 작품에 대한 널리 알려진 정설과 같은 해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본 작품의 해석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해석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작품들은 여럿 있었다. 최인호 작가의 〈타인의 방〉과 같은 소설의 경우 〈요한 시집〉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튜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다양한 해석을 미리 접한 뒤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쉽게 읽히는 다른 작품들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소설에 담긴 메시지를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작품들은 노동 소설들이 많은데, 수업에서는 정화진의 〈씻물처럼〉과 방현석의 〈새벽출정〉을 다루었다. 이 작품들을 읽고 당시의 노동 문제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하며 사회의 이해 폭을 넓혔다. 또 1980년대 작품들 중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들을 다루며 함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아픔에 대해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문학에서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읽으며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학기에 한국현대소설교육론의 수업과 튜터링을 통해서 나는 텍스트를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의 나는 학교 밖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작품 내 내용의 흐름과 작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장치들을 파악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오고,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해 보고 나니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경험을 토대로 수업과 튜터링에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소설에 대한 여러 견해 중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취하고, 내 의견을 융합하여 좀더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튜터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유익했다. 또한 튜터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모두가 작품을 읽고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즉, 미리 작품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튜터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튜터링의 규칙 중 가장 중요한 룰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튜터링에서 했던 소설해석 방식 등을 곱씹어 보며 이미 읽은 소설들을 다시 읽거나 아직 읽지 않은 소설들을 새롭게 읽게 되었다. 지금은 오상원의 <유예>를 읽고 있다. 고등학생 때에 읽었던 기억이 나지만, 당시와 지금의 작품 내용 해석은 매우 다르다. 한국현대소설교육론과 튜터링을 통해 어떤 텍스트이든 해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튜터링 제도에 대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영어교육과 전공수업에서도 튜터링을 신청하여 좀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를 돕는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교육학에서도 협동학습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협동학습에서 답안을 이끌어내기 힘들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튜터를 두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본다.

나는 이미 다음 학기가 마지막 학기라서 더 이상 튜터링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후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하고 싶다.



한준범 튜터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14학번

초급마인어읽기와쓰기(2) (2014학년도 2학기)

자신감을 부쩍 키워준 ‘20시간’

때는 바야흐로 2014년 8월 무더운 여름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금의 튜터 강상욱 선배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다. 다름이 아니고 2학기 때 인도네시아어 스터디 형식으로 팀을 꾸릴까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말씀이셨다. 1학기 때 학과 행사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고 수업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향했던 나는 친한 동기라고는 딱 셋뿐이었다. 그래서 어색한 동기들과 팀이 되면 어찌나 하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단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사실 처음 튜터가 되고자 한 목적은 단지 방학 기간 동안 전공언어 공부가 소홀하여 학습 보완 차원에서였다. 2학기 개강 후 튜터링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프로그램의 이수 과정을 간단히 소개받은 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다. 그 후 튜터링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 1시간은 실생활에 쓰이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나머지 1시간은 문법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튜터와 튜티의 비율은 1:6이었다. 우리 팀에 특징이 있다면 강상욱 선배님 말고도 문법 수업에 도움을 주실 10학번 강태구 선배님께서도 튜터링을 돕기로 하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튜터가 2명인 셈이다.

그날 이후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잊어버린 내용만 주워 담자’라는 식으로 수업에 임했다. 별로 얻어가는 내용도 없을 것 같고 교수님 없이 8명

정도가 모여 있으니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주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내 걱정은 완전히 빗나갔다. 튜터 형들께서 수업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오셔서 첫날이었지만 수업은 마치 오랜 기간 지속된 것처럼 척척 진행이 되었다. 수업 자료도 정확히 우리 눈높이 수준에 맞는 내용이었고 학습의 기본 뼈대는 시험 위주가 아닌 전공과 관련하여 정말로 알아야 할 굵직굵직한 지식이었다. 수업을 듣고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바로 실행에 옮겼다. 나는 그날 수업을 듣고 너무 감동하여 주간보고서를 앞으로 10주 동안 모두 쓰겠다고 선언했다.

튜터링이 진행될 때마다 나도 그렇지만 함께 공부하는 튜티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우리 팀에는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튜티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친구들은 튜터링 수업을 매주 받으면서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튜터링 수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본 전공 수업 때 우리 팀 튜티들은 교수님께서 지목하여 인도네시아어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바로 해냈다. 불과 1학기 때는 교수님께서 자신을 지목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틀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이제 우리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다.

원어민 교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인도네시아어는 상당히 전달력과 속도가 빠른 언어이다. 원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전공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평소 수업 때 되도록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신다. 그리하여 여태 교수님과의 대화가 정말 어려웠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문법적으로 틀리면 부끄럽고 행여나 말을 잘못 전달해드리면 어쩌나 하는 불편하고도 걱정되는 느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실생활에 쓰이는 인도네시아어를 암기해 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어민 교수님과 대화를 했다. 놀랍게도 평소와 매우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 불안감이 없어지고 교수님께 한 마디 더 말을 붙여보고 싶었다. 원어민 교수님께서도 1학기에 비해 달라진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 주셨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신 원어민 교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매우 좋아하셨다.

튜터링이 한창 진행되고 2학기 첫 시험인 중간고사에서 튜티들의 전공 성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직 상승했다. 튜터링의 본 목적은 사실 시험이 아니었

다. 주된 학습목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나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인도네시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것도 필수적인 내용을 익히게 되어 시험 성적에도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2학기 때의 수업 태도와 시작하기 전의 마음가짐은 확실히 1학기 때와 차이가 있었다. 전에는 전공 교수님께서 다음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룬다고 하시면 너무 하기가 싫고 2시간 또는 3시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고 예고를 하시면 오히려 그 전부터 수업에 기대가 되어서 수업 전에 확실하게 예습을 했다. 또한 준비를 마치고 다루었던 관련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갔다. 수업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더 아쉬운 날도 있었다.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것도 많아지고 칭찬도 많이 받아서 자연스럽게 얼굴빛도 밝아졌다.

튜터링 활동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이외에도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들 중에 특히 대학생생활에서의 ‘커뮤니티’와 ‘대인관계 기술’이 놀랍게 향상된 것을 느꼈다. 튜터 형은 수업과 관계된 내용이나 학교와 연관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바로 단체 카카오톡 방에 공고해 주셨다. 그러면서 튜터께서는 대학생생활을 할 때 학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전공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정보를 사람들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학생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혼자만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당장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면 더 큰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튜터링을 하면서 ‘대인관계 기술’ 또한 향상이 되었다. 선배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동기들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마음가짐을 신중하게 가지고 예절을 지키려 노력했다. 튜터께서는 우리 동기들에게 남자라면 가끔 군대에 대한 팁과 남/녀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다. 수업 외적으로도 기본적인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몸소 익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10주차라고 해서 처음에는 수업이 다소 길고 지루할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 주씩 진행될 때마다 전공언어 실력이 상승하는 기분이 들고 해당 분야에 관심도 많이 생겨서 질문거리가 많아져 오히려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여태까지 작성한 주간 보고서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봤다. 9월 초에 시작했을 때는 모두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긴팔을 입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외투에 목도리까지 하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었던 튜터링이 끝나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다. 전공 수업이 9교시에 끝나는 목요일은 늦은 시간이지만 수업 종료 후 바로 튜터링 수업을 하러 보통 공학관으로 달려가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다.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서로 푹푹 묻쳐 나중에는 하나가 되었다.

수업을 마치고 작은 케이크와 함께 모두가 조촐하게 뒤풀이를 했다. 앞으로 서로의 파이팅을 다진다는 취지였다. 비록 튜터링은 10주차를 다 채우고 끝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은 공부법을 항상 유념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튜터 형은 모르는 내용이나 번역이 필요한 부분은 주저없이 질문하라고 하셨다. 얼마 남지 않은 신입생 시절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다.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튜터링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해 주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실력을 많이 쌓은 뒤 직접 튜터가 되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값진 경험을 이번 학기에 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순간만큼은 잊지 않게 될 거라 확신한다.

함께 공부한 튜터, 튜티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한다.

2014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함께하는 공부 커져가는 보람

발 행 인 정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발 행 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우 130-791)

전 화 02)2173-2127

팩 스 02)2173-2617

홈페이지 <http://builder.hufs.ac.kr/user/ctl/index.html>

이 메 일 ctl@hufs.ac.kr

디 자 인 한웅이앤티피

인 쇄 재영프린팅

발 행 일 2015년 2월 10일

〈비매품〉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홈페이지 <http://www.hufs.ac.kr/user/ctl/>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번지 교수학습개발원 306호

TEL. 02-2173-2127 / FAX. 02-2173-2617